

발 간 등 록 번 호

11-1300-000069-10

#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병무청

래  
한  
사  
관  
관

래  
한  
사  
관  
관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 선배들의 병영체험담이 소중한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 박창명입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을 지닌 ‘정의’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이지만, 일상에서 각종 부조리와 반칙을 접할 때면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은 먼 이야기처럼 느끼게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계속 체류할 경우 3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나 질병·학력 사유로 보충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역 복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하다며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국 수호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선택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동감 넘치는 군 생활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6」을 발간하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뜻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성장한 영주권자들에게 군 생활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교포 2세도 있고, 인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만 생활한 재외국민도 있습니다. 개성을 존중받으며, 밥보다는 햄버거에, 모국어보다는 거주국의 언어에 익숙한 생활을 하다 다소 경직된 군 문화에 적응하는 일은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1)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BMI지수

질병이나 학력 사유로 보충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159cm 이상, 신체질량지수<sup>1)</sup> 17이상 33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를 판정하는 기본적인 처분 기준입니다. 선천적인 또는 장시간에 걸쳐 고착된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일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의 과정이며, 검정고시를 거쳐 고졸 미만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일은 불우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변화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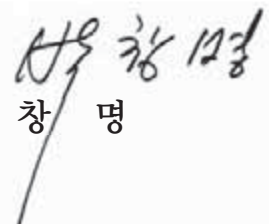
지난 4~5월에 실시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공모전에 접수된 165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입대 초기 얼마간의 조정기를 거치긴 하지만, 군 복무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곧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병역을 선택한 계기나 배경은 달랐지만, 도전과 변화를 택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열정과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의 후회 없는 특별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등불이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면 입대에서 전역까지 건강하게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력 교정, 체중 감량 등을 통해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민간병원 등과 협약하여 무료치료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병역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우며 숭고한 것임을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선배들의 병영체험담이 병역이행을 앞둔 후배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병역의 의미를 나누고자 바쁜 일상시간을 할애하여 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자원 병역이행 병사들, 귀한 아들을 기꺼이 조국에 맡겨준 장병 가족들, 그리고 부대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병무청장 박 창 명



‘대한사람 대한으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랑스러운 자원 병역이행 병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입니다.

먼저 자원입대를 선택한 당당한 청년들의 군 생활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6」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분 1초의 여유도 갖기 힘든 경쟁 구도 속에서 병역이행을 위해 21개월이라는 시간을 선뜻 내려놓기는 힘든 일일 것입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외국의 영주권자나 질병 또는 학력 사유로 현역병 입영의무가 없는 사람이 군 복무를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발적인 군 생활의 경험을 자기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서른 한 살의 나이에 미국의 대학 교수라는 지위와 명예를 이등병 계급 아래 내려놓았고, 또 다른 이는 1cm 키 키우기에 도전하였으며, 현역판정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0.3cm를 늘리기 위해 신장체중 검사대 앞에서 수백 회에 걸쳐 팔굽혀펴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뽕뽕 언 땅도 녹여버릴 듯한 전우애로 훈련에 임하는 자원입대자들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의 용기와 도전정신을 엿보았습니다.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호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조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내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잊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이들이 선배들의 국토수호의 임무를 물샐 틈 없이 이어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대표하여 자원 병역이행 병사를 비롯한 국군 장병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부에서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도 과거와는 달리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병사의 수기 중에 군 복무의 시간을 '일시정지', '작전타임'에 비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군 복무는 사회와 단절되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재도약할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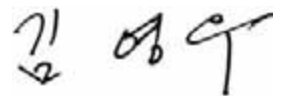
아무쪼록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통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을 단련하고, 앞날을 계획하여 보다 성장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 박창명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병무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간되는 「대한사람 대한으로」에 수록된 모범사례가 자원 병역이행 병사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년 8월

국방위원장

김 영 우





# 목 차

CONTENTS

산 · 문 · 부 · 문

영주권 병사

- 04 발간사 병무청장 | 박창명 |
- 06 격려사 국방위원장 | 김영우 |
- 10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11 질병치유 · 학력변동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 최우수상

- 14 내 나이 31, 내 인생의 작전타임 | 박주원 |

## 우수상

- 20 아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다 | 안창섭(안형빈의 부) |
- 28 후회는 없다 | 박종호 |

## 장려상

- 32 진정한 대한의 건아가 되어가는 의미 | 류영선 |
- 39 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 양준호 |
- 45 서른 한 살의 병영생활 | 강윤석 |
- 50 대한의 사나이로 거듭나게 한 계단 | 최지운 |

## 입선작

- 56 이방인에서 대한 용사로 | 김민수 |
- 61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 박지훈 |
- 66 군대에서 받은 선물 | 김채현 |
- 71 내 평생의 자랑거리 | 심우석 |
- 75 군에서 성큼 자란 내 아들 | 안성숙(이승윤의 모) |
- 79 나의 나라, 대한민국 | 성승현 |
- 85 640일의 틈새 | 이광수 |
- 90 나라를 얻는 방법 | 김우진 |
- 94 바나나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 박정훈 |
- 100 오늘 내가 사는 게 자랑스러운 이유 | 백동원 |

질병치유 · 학력변동 병사

● 최우수상

106 힘내라 아홉수! - 더욱 찬란할 내 인생 제3막을 위하여 | 조용경 |

● 우수상

112 자랑스러운 아들을 소개합니다 | 김정재(이덕원의 모) |

117 삶이 바뀌는 계기 | 박현우 |

● 장려상

122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박재엽 |

128 내가 이곳에 온 이유 | 조병진 |

133 2개월간의 청춘고백 | 김의혁 |

138 결전 | 이대발 |

● 입선작

142 선택은 내가, 후회는 네가 | 이종빈 |

146 내게 맞는 옷 | 박관희 |

150 군대, 인연과 기회의 장 | 손영호 |

만 · 화 · 부 · 문

● 장려상

156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 이도형 |

160 군 입대 전과 후 | 김술범 |

164 나의 군대이야기 | 김동해 |

인터뷰

170 '지금 만나러 갑니다'  
태양의 후예, 한빛부대 영주권 병사들

희망메시지

176 선임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15선

심사평

182 한국문인협회 \_ 최성배, 우보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진 귀국하여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 출국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10년 이상 단독으로 국외 거주한 경우도 해당)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 영주권 사본 등 체류자격 증명서  
(단,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체류자격 증명서 제출 생략)

### 신청기관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등
-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 입영자를 위한 편의 제공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가능
- 1주간 “군(軍)적응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 실시)
- 영주권 유지를 위해 정기휴가 기간 중 이주국가 방문 시 왕복 항공운임 지원
  - 전역 후 이주국가로 출국 시 귀가여비 지원

## 질병치유·학력변동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치유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을 상향하여 현역병 복무를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 등을 거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해 주는 제도

### 신청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치유하거나 학력을 상향하여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 \* 신장·체중 사유 4급 처분자 포함

### 구비서류

-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 질병치유, 학력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학력증명서 등  
(단, 자체의료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 신청기관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 신체검사

- 관할 지방청 징병검사장
- 신체검사 당일 질병치유 증빙자료 지참

### 병역처분

- 신체검사, 학력상향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 보충역 → 현역
- \* 제2국민역 → 현역 또는 보충역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산문부문  
(영주권 병사)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생활 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을 밝힙니다.



## 내 나이 31, 내 인생의 작전타임

2사단 17연대 일병 박주원

내 나이 31, 이제 이등병 딱지를 떼고 작대기 하나를 더해 2사단 노도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병 박주원이다. “야! 박 이병, 어디 선임 앞에서 감히 입을 짝 벌리고 하품하나?” 나이도 한참 어리고 몇 번째 동생뻘인데, 선임이라고 군기를 잡는다. 정말 화가 난다. 이럴 때 나는 또 하나의 정체성 충돌로 혼돈에 빠지게 된다.

사실 난 미국 뉴욕 주에 있는 스키드모어 칼리지(Skidmore College)의 대학교 교수이다. 스키드모어 칼리지는 미국 뉴스위크(Newsweek)가 뉴 아이비대학으로 선정한 사립대이자, 미 전국 4,000여 개 넘는 대학 중 50위 안에 속하는 명문대이다. 나는 만 스물 여덟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옥스포드, 스탠포드 등 여러 명문대에서 강연한 경력도 있다. 그 려다. 미국 대학교 교수인 나는 서른이 넘는 늦은 나이에 대한민국 육군으로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그래서 많이들 묻는다. “도대체 왜? 늦깎이 나이에 군대를?”

나는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오랜 생활을 해왔다. 여덟 살 때 우리 가족은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케냐로 향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척들,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하는 것이 싫었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아프리카의 기아와 열악한 환경이었다. 어린 나에게 케냐는 무서운 곳이었다. 나는 울먹거리며 외쳤다. “아빠는 바보야!”

11년 동안 아프리카 태양 아래서 학교를 다녔다. 외롭고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 밤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눈물은 매일 밤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공부하고 적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자 어느덧 케냐는 나의 고향이 되어 있었다. 빗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고, 그 물을 모아 화장실 물을 내리며 사는 일에 익숙해지고, 운동화 바닥이 다 닳았을 때는 자동차 타이어 조각 고무를 꺾매 신었다. 비오는 날 타이어 조각을 꺾맨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면 내 발자국은 자동차 바퀴 자국으로 찍혔다. 나의 하얀 피부를 보고 놀렸던 아이들은 내 친구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케냐를 떠났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케냐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소중한 추억의 자리를 차지하고 남아있다.

미국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생활비까지 받으며 나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모두 10년 안에 취득했고,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한국 사람인 내가 치열한 교수 경쟁률을 뚫고 사립대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과정인 테뉴어(Tenure) 트랙 교수로 초빙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서른이 되기 전에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한다. 젊은 나이에 명예를 얻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서게 됐으니 사람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한참 성장하고 유명해지고 승승장구해야 할 시기에 군대에 입대를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겐 그게 너무 아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국외로 이주해 오랜 해외생활을 해왔고, 한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에 더더욱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입대를 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인가? 한국 군대를 입대해서 얻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다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진 않다. 명예, 권력, 돈, 시간, 기회 등 나는 사람들이 노력해도 얻기 힘든 것들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내려놓았다. 이제는 내 자신을 훈련병과 이등병으로 낮춰야 했다. 나보다 훨씬 어린 선임들과 간부들에게 반말을 듣고 그들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 대학교 교수로서 군대 계급 사회의 줄병으로 적응하는 것이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고, 통제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입대하기 전부터 다짐했던 것이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과정 속에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있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보물 같은 시간 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 우리 부대 화장실에는 도미니크 로로(Dominique Loreau)의 글이 곳곳에 붙어있다.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하지만 시간을 그저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이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모든 건 차곡차곡 쌓이는 법이다.”

인생의 작은 것에 충실하면 더 큰 것에도 충실할 수 있는 법이다.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다음에도 잘 할 수 있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잠깐 멈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대에서는 취침시간 22시부터 24시까지 공부연등을 허락하고 병사들

의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는 밤마다 공부연등을 하고 새로 나오는 논문들을 읽기도 하며, 논문을 쓰고 편집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쓴 논문이 일병 4호봉 때 영국 학문 저널에 게재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같은 생활관 동기 한 명은 밤마다 일본어 공부를 하고, 또 한 명은 영어공부를 한다. 해외 파병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동기도 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전우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또 군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을 내다보게 하고,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한다. 고정된 옛 군대 전통이나 문화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게 한다. 올해 초에 도입된 수신용 핸드폰의 예를 들어보자. 각 생활관마다 병사들을 위해 수신용 핸드폰이 보급되었다. 일과 시간 후에 부모님들과 지인들은 복무 중인 병사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보급된 수신용 핸드폰이 군대에 허용되고 생활관 안에서 쓸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을 거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계급별 동기 제도이다.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동기별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 부대도 계급별 동기 제도를 실행하고 있



다. 예전에는 몇 달 간격으로 동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계급별로 동기가 되는 것이다. 같은 일 병이었다가 한 명이 먼저 상병으로 진급하면 선임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계급의 중요성을 앞세우고 존중해 주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 이것으로 인해 동기들이 더 많아지고 더욱더 전우애와 단결을 강화시켜준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관계가 있다. 군대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밖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그만이지만, 군대 생활에서는 같은 동기, 선임, 후임, 간부가 매일 부딪히며 생활해야 한다. 문제가 있어도 같이 생활해야 하며, 같은 군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군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인간관계 훈련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교훈이지 않을까 싶다.

군 입대를 앞둔 후임들과 복무 중인 전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군 복무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축구나 농구 게임에 있는 ‘하프타임’ 또는 ‘작전타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20대까지 즉, 군 입대 전까지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작전을 세우자.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보충하고 지식을 쌓자. 한발자국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되돌아보자. 내가 좋아하는 미켈란젤로의 명언이 있다. “우리들 대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세워서 그걸 덩석 이루어버리는 것이다.” 꿈을 크게 꾸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길고 할일도 더 많을 것이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작전을 세우고,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다. 군대에 있는 시간은 인생의 ‘작전지속 지원’의 시간이다. 군대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얼마 전

부대에서 운동하던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국군홍천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지금까지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 왔었고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부상은 나에게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재활하는 시간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교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해를 해야 하는 직업이다. 자대에서 그리고 군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군 생활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들은 전역 후 미국 대학의 교수로 돌아갈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아킬레스건만을 재활하는 것이 아니고 군 생활 내내 다양한 훈련들을 통하여 내 삶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시키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군대에서는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내 나이 31, 앞으로 남은 늦깎이 군 생활 동안 겪게 될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 문제도 두렵지 않다. 첫째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애국심 때문이고, 둘째는 군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쌓여갈 내 삶의 근육들은 더욱더 튼튼하게 단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단련된 내 삶의 근육들은 앞으로 펼쳐지는 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두고두고 사용될 내 삶의 밑천이요 자본이 될 것이다.





## 아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다

안창섭 (7포병여단 일병 안형빈의 부)

### 장하다 내 아들

아차 왜 아들에게 제식(制式)의 기본에 대해 설명해 줄 생각을 못했을까? 입대를 앞둔 신병들이 연병장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나는 소스라쳤다. 기본적인 군대 용어를 인터넷에서 찾아 정리하여 프린트를 해주면서도 제식훈련에 관해서는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어이었다'가 이런 순간을 두고 한 말일 것이었다. 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이미 몸으로 부딪치고 있었다. 제식의 기본을 알 턱이 없는 아들이 1천여 명 입소자들 틈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가며 대열과 하나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우향우, 좌향좌, 뒤로 돌아' 등 제식훈련 용어조차 알아듣지 못할 아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하다 내 아들! 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또 쳤다.

입영자들이 대열을 갖추 연병장을 빠져 나간 뒤 재외 영주권을 가진 입영자의 부모들을 위한 설명회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아들에게 멈춰져 있었다. 신병 교육과정과 영내 생활에 대해 매우 친절히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대견함이 쉬 가지지 않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몇 개국 언어에 대해 통역 가능한 요원이 분대마다 있습니다. 신

병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소대장의 설명에 귀가 번쩍 뜨였다. 나는 이 말을 어리둥절해 하는 아내에게 통역해 주었다. 아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아내에게도 아들의 언어장벽은 큰 걱정거리였을 것이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남편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군장병으로 아들을 떠나 보내는 엄마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리랴. 그러나 아내는 나보다 훨씬 의연했다. 군 입대, 훈련소 입소식 등 생소한 풍경을 즐기기도 했거니와 아들이 그 대열에 있다는 것을 가슴 뿌듯해 했다. 아들의 군 입대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내가 고맙고 또 고마웠다.

## 아! 한국어

나는 1남 2녀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다. 26년 째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인 아내와 그 사이에 큰아들 형빈, 밑으로 두 딸을 두고 있다. 한국군에 입대를 함으로써 집안의 자랑거리가 된 형빈이는 94년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어로 수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국제학교를 졸업했다.

형빈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다. 물론 인도네시아서 나고 자랐으니만큼 일상생활 많은 부분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 형빈이가 영어사용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질 즈음부터 내게는 숙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서든 형빈이가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선 자카르타에 소재한 한국어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방학 때마다 한국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왕래를 했고, 아빠의 친구나 친척들도 많이 만났다. 한국의 유명한 곳을 함께 관광하기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K-Pop 등 공연을 관람하게 했다. 그 외에도 나는 형빈이가 한국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 말 그대로 체험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형빈이가 한국어 교육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  
했던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다. 여름방학 3주  
동안 경기도 일산 금계초등학교  
「귀국 자녀 특별반」 청강생이  
되었을 때다. 그러나 그마저  
형빈이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계기가 되  
어주지는 못했다. 이

내 본래의 환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형빈이의 한국어 실력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형빈이는 한국어 공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원도 중도 하차를 했다. 형빈이 친구 중에는 한국국적의 학생도 여럿 있다. 그런데 그들과의 소통도 오직 영어로만 한다. 곧 한국인 누구와도 영어로 소통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이 거기 있다. 그래서 형빈이는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질문까지도 대답은 늘 영어로 쉽게 처리해버리곤 했다. 안타까워하는 아빠의 마음을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고국이, 풍부한 감성과 넘치는 감각의 한국문화가, 맛깔난 한국의 음식이 형빈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기를 바라고 또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나의 은근하고 그침 없는 한국어 배우기 권유가 형빈이에게는 짐이요 부담이었던 것이다.

## 아버지의 갈등

군 입대, 형빈이에게 한국군 입대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의 간절한 바람으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형빈이의 한국군 입대는 그냥 소망으로 그치고 말 상황이었다. 크게

가로막은 언어의 장벽이 쉽게 뚫릴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 동부 지역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 진학을 한 형빈이가 3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한국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다. 그때 당황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아빠인 나였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오히려 형빈이에게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했다. 앞으로 형빈이가 한국에서 거주할 확률도 거의 없다는 핑계거리를 찾아내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 군 입대보다 한국에서 1년 과정의 리더십 교육이나 인턴십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다른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의 한국군 입대가 아닌가.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입대를 하겠다고 나서니 나는 온통 걱정부터 앞섰다.

정말 고맙게도 형빈이의 생각은 확고했다. 육군 입대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형빈이가 나보다 더 의연했다. 형빈이에게 최적지로 생각되는 카투사와 같은 근무지를 넘보는 나와는 각도가 달랐다. 2014년 12월 미국에서 날아온 형빈이와 나는 서울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과정에 도전했다. 나는 형빈이의 입대를 걱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혹 형빈이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때때로 형빈이의 눈치를 살피며 최선의 보조에 공을 들였다. 주어진 시간 안에 부과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인성검사는 나와 형빈이에게 고비이기도 했다. 한국어 능력 때문에 인성검사가 불가능했다. 다행히 감독관께서 내가 도와주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인성검사 문제를 풀고 있는 형빈이 뒤에서 통번역을 해주고 형빈이는 문제를 풀었다.

최종 결과는 2급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다.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투성이인 형빈이의 군 입대는 점점 현실이 돼 가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형빈이의 언어 현실을 감안한 부대에 보내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을 전하자 상담사는 “그런 부대는 없다”



고 하였다. 형빈이의 언어 능력을 감지한 상담사도 답답했을 것이다. 왜 굳이 입대를 시키려는지 안타깝다는 뉘앙스가 그의 표정에서 묻어나기도 했다. 그때도 형빈이가 더 단호했다. “특례는 필요 없다”였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했다. 어떤 부대에 배치가 되든 재외 영주권자 입영일자인 8월 10일에 맞춰 입대하겠다고 했다. 잠시 미국으로 돌아간 형빈이는 3학년 과정을 마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시 입대 선상에 섰다.

### 내 아들이 변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이 그렇게 빛난다는 것을 형빈이를 통해서 새삼 깨달았다. 한국 군인의 걸음걸이가 그렇게 보무당당(步武堂堂)하다는 것을 형빈이를 통해서 새삼 확인했다. 휴가를 나온 형빈이는 말투도 달랐고, 걸음걸이도 달랐다. 들쳐 메고온 배낭 가득 한국 국군으로서 자부심이 건강한 맥박으로 뛰고 있었다. 형빈이가 스스로 그렇게까지 대한민국 국군임을 자랑스러워할 줄은 나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반신반의 했을 아빠의 조국이 비로소 형빈의 조국으로 크게 자리매김 되어 있었다.

입대 초기 반복되는 생활에서 터져 나온 불만은 그새 좋은 약이 되어 있었다. 눈 치우는 일꾼, 빗자루질이나 하러 입대했냐고 토로하던 이등병 시절의 불만은 일병 계급장 안으로 녹아들어 정신의 살이 되어 있었다. 반복되는 훈련과 단순 노동 속에서 삶의 한 과정을 발견했다고 했다. 사색의 대상이 되더라고 했다. 정말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나의 감사는 여기에 그칠 수가 없다. 그렇게 바라던 형빈이의 한국어 실력이 군대 생활로 인해 일취월장한 것이다. 물론 형빈이와 나의 소통 언어는 아직도 영어다. 형빈이가 보내는 편지 또한 온통 영어다. ‘불침번, 소대장, 제식훈련, 화생방’ 등 말 그대로 표기해야만 이해가 분명할 단어를 제외하고는 다 영어로 쓰여 있다. 하지만 괜찮다. 형빈이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두려움을 떨

쳐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안다. 그리고 그것은 형빈이가 군대 생활로 인해 얻을 그 많은 것들 중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그랬다. 형빈이는 가능성이란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아빠의 가슴에 톡 안겨주었다. 형빈이로 인해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빛을 쬐다.

형빈이도 새삼스러운 것이 많을 것이다. 두 여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크나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휴가를 왔을 때 두 딸이 오빠를 보는 눈초리는 예전과 달라도 많이 달랐다. 오빠의 말투와 행동에 대해 키득거리며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그건 분명 놀림이 아니었다.

두 딸은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 특히 한국유치원을 졸업하고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는 막내 딸은 한국 연속극을 보며 엄마에게 동시에 통역을 해줄 정도다. 형빈이가 겪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딸들마저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어려서부터 노력한 효과를 딸들은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딸들은 오빠랑 한국여행을 할 때면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런 이유였을까? 딸들과 오빠와의 사이는 늘 ‘너냐, 나야’ 하는 친구 수준이었다. 내가 나무라듯 관계 정리를 해줄 때도 있었다. 그런데 형빈이의 군 입대로 인해 딸들의 오빠를 보는 각도가 한 방에 달라졌다. 이 새삼스러움을 형빈이가 즐길 것을 생각하면 나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형빈이의 한국군 입대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켜 주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 공동의 관심사를 제공했다. 가족애를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고, 외가의 친척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형빈이의 그 많은 다국적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강렬한 한국문화 전파일 것이다. 물론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무르녹아든 IT 환경과 그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한국인들의 지혜 때문이다. 연대 체육대회, 부대 단결활동 프로그램 미스터 태풍왕, 제식 경연대회, 새로운 부대원 전입과 전역, 개인 생일까지도 인도네시아

에서 공유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일인가. 훈련소 시절 소대원 카톡방을 개설해준 소대장께 거듭 감사드린다. 자대 배치된 후 포대원과 그 부모 모두를 묶어 하나가 되게 해준 밴드장께도 무한 감사를 드린다.

### 아버지, 아들 바보

나의 카카오톡 대문 사진은 형빈이의 훈련소 수료식 때 촬영한 한 것이다. 아마도 아주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형빈이의 전역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 사진은 때때로 나를 수다쟁이로 만든다. 그 사진으로 인해 아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쁘다.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대부분 다 아는 그 군대스리가 이야기다. 거기에 내 아들 이야기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나는 즐겁다. 사실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달라졌어요”다. 체력도 좋아지고 자세와 정신 상태도 달라졌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를 한다. 나는 거기에 갖은 이야기로 한술 더 뜬다. 그래서 혹자들은 내가 재외 영주권자 아들 군대 보내기 홍보대사라도 된 양 착각할 것이다.

재외 영주권자들이 한국군에 입대를 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실행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에서도, 또 비싼 돈을 주고도 쉽게 체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계이건 모계이건 한국계라면 꼭 한번 체험해볼 가치가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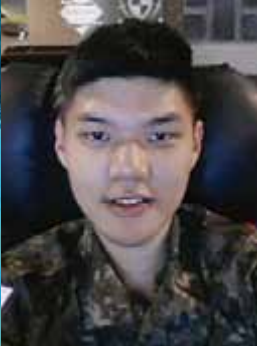
나는 형빈이의 아버지일 뿐이다. 그래서 그 귀중한 형빈이의 체험이 그의 일생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형빈이의 입대로 인해 내게도 오래 기억될 소중한 순간들이 많이 생겼다. 무엇보다 부자간의 가슴을 연 화끈한 소통들은 서로에게 자산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훈련소 퇴소식 때를 잊지 못한다. 이등병 계급장과 태극마크를 달아주던 순간, 형빈이가 내게 붙였던 그 우렁찬 경례와 건강하고 믿음직한 눈빛을 생생히 기억한다.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그 모습을 잊으랴.

형빈아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GO! GO!!





## 후회는 없다

17사단 투우중대 일병 박종호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선택의 여지없이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 나는 군대라는 곳을 자원해서 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4년간 해외에서만 살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중국에서 보냈고, 홍콩에서 장기간 공부한 덕에 홍콩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고, 혼자 많은 생각과 고민도 했다. 그리고 현재 육군 17사단 투우중대에서 복무중인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21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군대를 가지 않고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한다면? 남들보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고, '과연 내 조국을 위해 21개월이란 시간도 아까워하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닐까' 싶었다. ROTC 장교로 제대하신 아버지의 권유와 대다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입대를 위해 휴학하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을 굳혔다. 입대 신청부터 휴학계를 내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입대 한 달 전이야 부모님께 입대 사실을 알리자 두 분 모두 깜짝 놀라셨다. 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러워하셨고, 어머니는 뿔 하러 위협하게 입대 하나

고 걱정하셨지만, 내심 대견스럽게 여기셨으리라 믿는다.

2015년 11월 30일, 아침 일찍 육군훈련소로 향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줄지어 훈련소에 들어서고 있는 광경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오는구나 싶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로 작별인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했다. 내가 군대 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도 끝내는 “우리 아들 다 컸다.”며 대견해 하셨고, “몸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제대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집합을 위해 연병장으로 돌아설 때, 아주 잠깐이지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보았다. 속으로 에이 설마 우리 아빠가 생각하며 조교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처음 훈련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상상했던 군대의 모습과 달라 놀랐다. 깨끗하고 넓은 생활관, 흔히들 ‘짬밥’이라며 맛없다고 들은 군대 밥이 나는 굉장히 맛있었다. 신체 칫수를 재고 전투화, 전투복 등 보급품을 받았는데, 질이 좋았다. 특히 전투화의 방수성은 내가 지금까지 신어봤던 그 어떤 신발들과 비교해도 단연 으뜸이었다. 입대 전 예상했던 것과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렴, 군대인데 입대하면 힘들겠지.’ 생각하고 입대했더니 ‘역시 힘들구나!’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평소에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사회와도 단절되고 조교들의 통제를 받으려니 솔직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래도 조교들이 천천히 가르쳐 주어 군대 예절을 배우고, 주의사항을 익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차차 적응을 해 나갔고, 훈련소 동기들과 많이 친해졌다. 동기들이 성격도 다르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힘든 훈련들을 같이 겪으니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훈련 중 유독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면, 각개전투와 행군이었다. 특히 내가 입대하고 훈련을 받을 즈음엔 겨울 날씨가 돼서 야외에서 구르고 뒹굴어야 하는 각개전투는 너무 힘들었다. 땅이 얼어 그 위에서

기어 다니려니 온 몸이 아팠고, 산속 날씨에 바람도 췌뽕 부니 훈련 받으며 얼어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 종합 각개전투 평가를 볼 때, 장애물을 넘고 산길을 달려 끝인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훈련소 수료를 앞두고 행군을 했다. 완전군장을 메고 20km를 긴 시간에 걸쳐 행군했는데, 행군 간에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고, 에너지를 보충해 줄 건빵 등도 먹었기에 완주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럼에도 행군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묵묵히 걸으며 그 긴 고생스러웠던 훈련소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기 때문이다. 힘들었던 훈련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이 힘든 일을 우리가 해냈구나! 애 먹었지만 결국은 해 냈었지.’ 하는 성취감을 느끼며 훈련소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다.

꿈에도 그리던 수료식이 다가왔다. 허전했던 전투복 가슴팍에 이등병 약장을, 어깨에는 태극기를 달게 되었다. 군 생활 21개월 중 1개월 남짓한 기간이었지만, 수료식 당일에는 군 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마냥 기쁘고 좋았다. 아버지와 누나가 수료식 날 면회를 와서 그동안 꿈속에서만 봤던 피자과 치킨을 배터지게 먹었다. 그렇게 훈련소에서의 생활이 막을 내리자, 앞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야 할 자대에서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17사단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다. 훈련소에서 기차를 타고 인천에 있는 17사단에 도착해 사단보충대에서 지내다가 눈 깜짝할 새에 17사단 토우중대로 전입하게 됐다. 처음에 자대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무슨 임무를 하는 부대인지, 내 선임들은 누구인지, 내가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내 근심들을 말끔히 씻어준 건 토우중대의 모든 간부와 용사들이었다. 전입오자마자 다들 내게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보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물어보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나도 선임들의 관심과 호의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부대에 빨리 적응하고 모든 중대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자대에서 생활한지 다섯 달도 채 안 되지만 중대원들이 가

족처럼 느껴지고 토우중대가 집처럼 느껴진다.

앞으로의 군 생활 중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내 주변에 나처럼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로 병역이행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입대를 적극 권장해 주고 싶다.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살면서 내 나라를 지키려 2년도 안 되는 시간마저 투자하기 꺼려하는 것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 진정한 대한의 건아가 되어가는 의미

6사단 7연대 병장 류영선

우리 가족은 1984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민을 갔고, 그 후 6년 뒤인 199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난 태어났다. 2000년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카타르로 옮겨 나의 나머지 10대를 그곳에서 보냈다. 초·중·고 모든 과정을 영국학교와 미국학교를 다녔고 대학 또한 캐나다 UBC에서 졸업을 했다. 그래서 나의 학창시절 한국인 친구들은 나와 같은 현지2세대들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다시 말해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이러한 부족한 환경에서 부모님은 나와 형들에게 최소한의 한국 문화, 역사, 예절 그리고 언어를 집에서 교육하셨다. 군 복무의 중요성도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들었다. 나는 한국에 사는 20대 초반 남자들의 공통된 고민인 군 입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라를 위해 2년이란 세월을 헌신한다는 것이 불공평해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아버지는 한 예를 들려주셨다. 바로 유대인들의 애국심이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입대를 한다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서 살면서 억압과 증오의 대상이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끔찍한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국가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1948년 국가(이스라엘) 선포 이후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오랜 세월동안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억압과 침략을 받아왔고, 1910년에는 일본에게 침략당하여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았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고 아직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른 점은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국가 없는 고통을 몰라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군 복무를 회피한다는 거다. 국가가 있어 혜택을 누려왔으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그 국가를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거다. 그런 아버지께 군 복무를 하는 시간에 국제무대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조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는 군 복무가 힘들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여 기피하면 인생에서 겪을 많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세계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는 하였지만 군대는 가기 싫었다. 그리고 2년 이란 시간이 지났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2년 이란 세월동안 난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나와 달리 두 형들은 모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한국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 큰형은 공군 통역 장교로, 둘째형은 육군 통역병으로 조국을 지켰다. 그리고 큰형은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를, 둘째형은 스페인과 미국에서 MBA과정을 밟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형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 번 상기되었고, 성공의 첫 관문은 군 복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군대를 통해 사회에서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고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난 2014년에 한국에 귀국해 그해 12월 육군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였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효자로 살아 왔던 삶을 깨닫는 날이 바로 입대일이다. 내가 군 입대를 결정하고 입대 날짜를 받던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한국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내가 군 입대를 한다고 하니 많이 걱정 되셨는지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 어머니가 이런저런 음식을 해주시고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하셨을 때 나는 다 귀찮아 친구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리고 난 육군훈련소에 입교했다. 입교 후 2주쯤 지났을 무렵 훈련소 중대장님이 나의 기록부를 보시고 카타르에서 왔냐고 물어보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어머니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 입영식이 끝나고 훈련병 가족이 모두 떠난 후에도 그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어머니가 훈련소 주변을 맴도셨다는 거였다. 우연치 않게 중대장님이 지나는 길에 보고 왜 아직도 여기 계시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은 내가 걱정이 되어 훈련소를 못 떠나고 계신다고 하셨단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조차 안 하고 입대한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훈련소는 잊고 있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효도를 다짐할 수 있는 곳이다.

육군훈련소에서의 생활은 예상대로 너무 힘들었지만,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배웠다. 특히 종교행사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감명 깊게 남았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는 군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인생의 '일시정지'인 상태이라는 말씀이었다. 군 입대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지속적인 재생상태로 나의 실수나 단점을 쉽게 돌려볼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군 입대와 동시에 일시정지인 상태가 되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보완할 점을 찾는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난 나의 삶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것에 후회를 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정말 재생상태였다. 학창시절에는 공부가 성공이라 믿어 열심히 공부해 세계일류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나의 삶의 나침반은 갈 길을 잃었다. 하지만 논산 교회 종교행사를 통해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을 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모방하려고만 했던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동시에 나는 내 인생의 구체적인 삶의 계획표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표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기초적인 설계는 끝났다. 설계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살면서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과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다. 군에서는 정말 다양한 책들을 장병들에게 제공해 준다. 그 덕에 나는 한 달에 적어도 두 권씩 책을 읽어왔다. 훈련을 통해 얻는 교훈도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침구류를 정리를 하는 일은 귀찮지만, 이 일이 비록 작은 일에 불과해 보여도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오늘 하루 동안 닥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훈련소에서는 아침마다 촉박한 시간 안에 환복과 침구류 정리를 해야 했다. 시간이 가면서 정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벼룩만한 발전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긍정적인 태도는 힘든 훈련이나 고난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었다.

훈련소 수료식 이후, 마치 나의 군 생활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보직과 자대배치를 받는 순간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논산에서 보직을 취사병으로 받고 최전방 사단인 6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다. 웬지 처음부터 군 생활이 꼬이는 것 같았다. 오만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 일기장을 꺼내들어 군 입대를 한 계기부터 차근차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하기 힘든 경험을 많이 해보자는 거였다. 나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내가 칼질과 요리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전방사단에 배치되는 것은 후방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어느 정도 내 생각을 정리하니 맘이 편해지면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 모든 중대원들이 찾아와 인사를 해주고 반겨줬다. 잠시 선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행정정보관님과 면담을 하는 동시에 내가 GOP에서 취사병으로 군 생

활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면 취사병 대신 나에게 맞는 보직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GOP에서 근무를 한다는 말에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GOP에서 군 생활을 한다는 건 흔치 않은 기회이고 분단국가의 슬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전방근무를 하겠다고 행정정보관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2주 후 나는 레토나를 타고 전방으로 향했다.

전방에 도착했을 때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철책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또한 근처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은밀하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2땅굴을 보는 순간 분단국가의 슬픔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입대는 정말 필수라는 걸 깨닫고 내 주특기인 요리를 열심히 배워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 요리 초보인 나에게 정말 실력 있는 맞선임을 만났다. 정말 모든 전우들이 나의 맞선임의 요리 실력에 극찬을 보낼 정도로 요리 실력은 일품이었다. 그런 선임 밑에서 요리를 배우는 건 행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었다. ‘내가 잘못 배워서 맛없는 음식을 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내가 얻은 교훈인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자신이 있었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열심히 해 나갔다. 취사병의 기본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깔끔한 모습으로 단장했고, 조리 시작 15분 전에 취사장에 나와 조리법을 읽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놨다. 일을 스스로 찾고 공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모르는 부분은 선임들한테 조언을 구했다. 물론 일을 배우면서 실수를 했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 요리나 다른 중요한 팁을 노트에 꼼꼼히 적어 매일 저녁에 공부를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에 선임은 자신의 요리 비법을 알려줬고, 그 비법을 적용할 수 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다. 그 덕분에 나의 요리 실력은 전우들이 인정하는 실력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결국 나에게 대한 좋은 평가로 이어져 내가

해외파병을 원했을 때 간부님들께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 결과는 비록 안 좋았지만 나의 열정이 입증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

군에 입대하고 난 나의 하찮은 한국어 실력을 실감했다. 간부님들이나 장병들이 말할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상황을 넘기며 한심함을 느꼈다. 나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 제공해주는 진중문고와 국방신문을 이용해 공부를 했다. 공부 방법은 읽기 쉬운 한국 책들부터 시작했다. 큰소리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거나 주변 병사들에게 물어보면서 필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나의 한국어 실력은 많은 발전을 했다. 정말 군 생활 중 상당한 양의 독서로 인해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나의 관심사인 세계흐름을 공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토머스 프리드먼의 『The World Is Flat』란 책은 21세기의 세계 흐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인생 계획표의 틀을 잘 잡아주었다. 또한 다니엘 핑크의 『A Whole New Mind』라는 책에서는 하이 터치와 하이 콘셉트가 점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창조적·독창적·예술적인 콘텐츠와 나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고 보완을 하기로 결심했다. 군 생활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자기계발은 힘들었을 것이란 생각에 군 복무가 정말 의미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여서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와는 달리 인간관계가 끈끈한 민족이다. 그러한 민족의 끈끈함을 군대에서 많이 배워나갔다. 전국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남자들이 함께 일하고 밥 먹고 지내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외국에서 평생 살아왔던 나에게 한국의 문화는 어색했다. 예를 들면 선임들이 신병들에게 세면도구나 음식을 사주는 내리사랑이라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혼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선임 돈으로 사는지 이해가 안 됐다. 또 다른 예로는 병사들끼리 샤워 약속을 하는 것이다. 나에게 샤워는 나만

의 공간에서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남자들끼리 샤워 약속을 하는 것은 이상했다. 시간이 흐르고 한국문화에 익숙해진 나는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인의 정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먹을 것이나 생필품을 사주는 것은 후임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친분을 쌓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샤워를 같이 하는 것은 샤워를 하면서 일과시간에 못 했던 고민거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선임들이 후임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정이 많은 문화는 정말 어느 곳을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군 생활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은 단시간 안에 GDP 11위로 성장한 경제대국이다. 한국인의 정신과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이런 나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겐 영광이다. 그리고 군대를 통해 한국의 아픈 역사와 한국문화, 그리고 효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 진정한 대한의 건아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하여 나의 미래계획서를 기획할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였다. 이제 나는 군 복무를 통해 얻은 한국인의 정신과 끈기,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2군지사 2의무보급정비대 일병 양준호

경쾌한 알람소리 대신 구슬픈 이슬람 사원의 찬양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였다. 이슬람 종교의 색이 강한 인도네시아에서 인생의 전반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종교 문화를 배려해야 하는 것이 불편했던 나에게 부모님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다.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얻은 경험들이 어느새 두려웠던 나의 군 생활에 희망이 되어 있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의 DMZ 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미 머리끝까지 화나 있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입소를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입대한 국군장병들을 치하하는 기사가 뉴스에 보도될 만큼 세상은 뒤숭숭했었다. 그럼에도 입소 5일 차 내 일기장에는 훈련소의 꽃인 표창을 받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98번 훈련병으로서 양준호는 다시 태어났다. 모든 게 낯설었다. 다행스럽게 영주권자들은 같은 생활관에 배치해 주어 불편했던 생활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특별한 훈련이 없던 날에는 동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0대 초반인 남자가 좋아하는 태국의 관광지과 먹거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당장이라도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



만,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영주권자로서 입대 결정을 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기다리던 야외 훈련이 시작되었다. 영주권자들도 대한민국의 늠름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첫 훈련인 사격예비훈련에서 군인의 기본자세인 큰 목소리와 절제된 행동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 운이 좋게도 소대장님은 휴대용 마이크를 넘겨주시면서 훈련통제권을 인계하였다. 무려 215명이 되는 훈련병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두려웠지만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꽤기 있는 목소리와 함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소대장님은 다음날에 있을 사격 훈련도 부탁하셨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표시로 어깨를 툭 쳐주셨는데 그때만큼 내 자신이 뿌듯했던 적이 없었다.

다음 훈련은 각개전투였다. 며칠에 걸쳐서 하는 큰 훈련인 만큼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했다. 이틀째 되는 날, 산언덕을 헤집고 진흙탕과의 사투 끝에 돌아왔더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마는 불구덩이처럼 뜨거웠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일단 내색하지 않고 빠르게 취침을 하였다. 다음날이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분대장이 김새를 챘는지 이번 훈련을 열외 시켰다. 마지막까지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여 겁도 없이 직접 중대장님을 찾아갔다.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했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허락해 주셨다. 물론 군장을 메고 가는 과정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하늘에 붕 떠있는 느낌이 선명했기 때문이다. 분대장들과 동기들의 걱정을 한 몸에 떠안았지만 절대 포기하기는 싫었다. 야속하게도 날씨는 유독 덥고 습하였다. 마지막 코스인지라 언덕의 가파른 경사도 눈앞을 깜깜하게 만들었다. 뒤쳐진 모습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준 동기들 덕분에 힘이 났다. 말로만 듣던 동기애를 직접 느껴보니 위력은 대단했다. 사회에 있었으면 바로 포기해버렸을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함께해 준 전우들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 전우들에게 아껴뒀던 가나파이로 마음을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훈련의 끝을 알리는 제식 훈련을 하던 도중 분대장이 98번을 호명하였다. 앞으로 나가면서 무엇을 잘못하여 불려나가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때마침 다른 분대를 통솔하는 분대장이 지나가면서 “98번 상 받더라!”라는 말을 외쳤다. 온 몸에 소름이 끼쳤다. 순간 입소 5일차에 쓴 일기장의 한 장면이 스쳐지나갔다. 사실 사회에서는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누군가의 뒷모습만 뒤쫓아 가기에 바빴고,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준 분대장들과 전우와 같이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수료식 날짜가 성큼 다가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21명의 훈련병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메달을 수여받고 있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도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였다. 모든 행사가 끝이 나고, 6시간 동안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양념치킨을 먹다가 문자 한 통이 왔다. 자대는 의정부에 있는 2군수지원사령부. 이제부터가 진정한 군 생활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하였다.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였다.

10월 9일. 앞으로 21개월 동안 지내게 될 자대에 도착하였다.

훈련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철저한 계급체제로 부대의 막내로서 설 새 없이 움직였다. 진짜 사회생활이 시작



된 걸 온몸으로 느꼈다.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적당한 센스와 공감능력을 형성하여 간부님들과 선임들에게 이쁨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다.

11월 5일 첫 훈련이 시작되었다. 명칭은 ‘대대전술훈련’. 이등병 때 처음 들어본 ‘라운드 하우스’, ‘화스트 페이스’, ‘증가초소 운영’이라는 용어에 정신이 없었다. 그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대이동이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24인용 천막을 설치할 수 있었다. 팩이 무엇이고, 지주가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었다. 다시는 정신없이 끌려 다니기 싫어 따로 24인용 천막을 연구하였다. 2월에 있을 흑한기 훈련 때는 꼭 잘하고 싶었다. 3개월이 지난 뒤, 드디어 말로만 듣던 흑한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부대이동 조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저번 훈련보다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 시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부대이동 명령이 떨어지고 함박눈이 오는 날, 트럭을 타고 유유지에 도착하였다. 인원은 고작 8명, 하지만 설치해야 되는 천막은 6동, 시간은 촉박하고 날씨는 추웠다. 얼어붙은 땅 때문에 팩은 박히지 않았고, 체력은 점점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리더로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색하면 부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상황이었다. 각개전투 3일차 생각이 났다. 뒤쳐져 있는 나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준 전우들처럼 부대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수십 번 외치고 힘들어하는 전우를 격려하면서 힘겹게 부대이동을 끝마쳤다. 예상하지 못한 극한의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감사하게도 흑한기 훈련 포상이라는 큰 선물을 받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2016년을 맞이하면서 분대 생활관은 동기 생활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어 병사는 물론 간부님들도 어안이 병병했다. 중대장님과 행정보급관님이 따로 호출하여 ‘조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아직 전입 100일차도 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했

다.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보다는 전역 후 후배들에게 당당히 군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군인은 오로지 명령에 복종해야 하므로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이 순간을 즐기기로 하였다.

조장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전입 신병들을 맞이하였다. 그들을 보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모든 게 두렵고 낯선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부모님의 품이 간절하다는 걸 알고 신병들에게 항상 통화를 유도하였다. 형식적인 질문을 먼저 물어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친근감을 형성하였다. 그래야 후임들이 선임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로서의 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 후임이 질문을 던졌다. 사실 군대 자체가 각양각색의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 줄 말은 없었다. 그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었다. 첫째, 군인의 생명은 명령이므로 지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둘째,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할 것. 마지막으로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면 긍정적으로 할 것. 찡그리는 표정보다는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다. 이렇게 후임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보내다가 조장 역할이 끝나게 되었다. 나에겐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당직사관의 업무를 도와주는 ‘당직 부사관’이라는 역할이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시간인 점호시간을 진행하는 모습이 위엄 있어 보였다. 매일 점호시간마다 다짐했다. 당직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토록 바라던 당직 부사관이 되었다. 저녁점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자신이 뿌듯했고, 더 이상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배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조언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솟구쳤다.

마지막으로 자원 병역이행자 생활 수기를 통해 277일 동안 쓴 일기장을 다 읽어볼 수 있었다. 군대에서 나는 처음으로 목표를 위해 치밀한 과정을 준비하였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기회가 많았다. 군대는 시간낭비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결코 아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 리더와 조직생활의 경험들은 돈 주고는 배우지 못하는 깨달음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주권자들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살아온 배경만 다를 뿐이지 못 할 게 전혀 없다. 물론 주위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다만, 실력으로 승부하기만 한다면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영주권자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21개월의 기간 동안 군대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서른 한 살의 병영생활

37사단 110연대 상병 강윤석

가벼운 스윙과 함께 골프채가 공을 때리는 묵직한 진동이 손을 타고 느껴진다. 공은 저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홀을 향해 날아간다. 짜릿한 느낌이 관중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느껴진다. 공이 내가 목표했던 곳에 안착한 것이다. 나는 이런 느낌이 좋다.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rea PGA Tour 골프선수다. 늦은 나이에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이곳, 군대에 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내 몸은 현실로 돌아온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관물대들이 눈에 들어온다. 졸음과 함께 침구류를 정돈하는 전우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생각이 스쳐간다. 내 나이 서른하나, 다른 전우들보단 조금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외국에서 10년 정도 살았다. 군대에 가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주위 선후배들은 안가도 되는 군대를 굳이 가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다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스무 살부터 골프선수로 활동하면서 내 가슴 한 켠에는 늘 내 조국의 이름을 내세우고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입대

를 결정하게 됐다.

### 서른 살 막내 이등병 강윤석

군대가 가장 낯 힘들게 했던 것은 나보다 아홉 살이 적은 전우가 선임이 되는 철저한 계급 사회라는 것이다. 육군훈련소에서 자대배치를 받고 우리 대대에 처음 온 날이 기억난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생활관에 들어가 선임들에게 인사를 했다. 최고 선임병이 분대원들을 한 명씩 소개시켜 줬는데 내 바로 맞선임이 스물 하나, 계급은 일병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편하게 말하거나 반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선임을 무시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군 생활에서의 경험을 나보다 먼저 했고, 군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았다. 내가 모르는 군 생활에 대해 알려줄 때면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 선배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새로운 세상에 와서 적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 마네킹처럼 서 있어야 하는 경계근무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햇볕은 따갑고 더운 날씨에 총과 장구류를 착용하고 위병소 근무에 첫 투입되었다. 이렇게 덥고 짜증나는 날씨에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경계근무는 가만히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이 우리 대대를 어슬렁거리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야간에 경계근무에 들어갈 때는 암구호는 필히 숙지하여야 했다. 수상한 사람이 위병소 가까이 오게 되면 엄폐 후 수하를 해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경계근무 시 졸거나 근무자와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2시간

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는지 경계근무를 서면서 새롭게 느꼈다. 내가 하는 골프로 비교하면 겨우 9홀 정도 플레이 하는 시간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18홀을 다 플레이 한 것 보다 더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말이다.

### 단체생활과 정해진 취침, 기상 시간

보통 집에서는 나의 다음날 스케줄에 따라 내 방에서 나 혼자 자고 일어나 하루 스케줄에 따라 아침이 시작된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같은 생활관에서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정해진 시간에 같이 자고 일어나야 한다. 가끔 내 옆의 전우가 코라도 고는 날이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훈련소 때 내 옆 동기는 매일 밤 코를 골고 이를 갈았다.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코고는 소리와 이가는 소리는 훈련소를 수료하는 전날 밤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코고는 소리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해서 다음날 피곤한 날도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 그 소리에 익숙해졌는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휴가를 나가서 '내 방에서 편하게 혼자 자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이야. 군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 청소와 식판 닦기는 군 생활의 필수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의 특성상 생활관을 비롯한 건물이나 주위에는 항상 쓰레기와 먼지가 많다. 매일 아침 점호를 마치고 30분 동안 담당구역 청소를 하고 저녁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또 담당구역 청소를 한다. 그리고 점심때는 식사 후 식판을 닦고 취사장 청소를 한다. 군대에 와서 군인들이 이렇게 청소를 자주 하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식판을 닦고 있는데 집안일을 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과 봉





사를 하시며 아침저녁으로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 군대에 와서 어머니가 매일 하시던 일을 내가 직접 해보니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21개월 동안 하는 청소와 설거지를 어머니는 그동안 30년 넘게 해 오셨을 텐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군대에 가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설거지와 청소를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 6개월 남은 나의 군 생활의 각오

나의 지난 1년 5개월 군 생활을 뒤돌아보면 늘 긍정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멈춘 시간 속에서 사는 기분이기도 했고, 군대에서 맡은 나의 임무와 훈련들이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사무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군 생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대대장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았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람이 성장한다. 21개월의 군 생

활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사회에 뒤처져 가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군 생활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목적지에 더 가까이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세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군 생활이 고된 일이라고 기피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힘든 일들을 기피할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지금 하는 군 생활이 곧 나를 한층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군 생활이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군 생활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 대한의 사나이로 거듭나게 한 계단

6군단 6공병여단 일병 최지운

진군!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12년 동안 살았으며 현재 스물두 살의 나이로 군대에 자원입대 했습니다. 비록 제가 군 생활을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겪으면서 느낀 것들을 모두에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회사 업무 때문에 중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우리 가족 모두 아버지를 따라 떠나면 타지로 이주하게 되었다. 한창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워야 할 시기에 중국어를 배우면서 자랐고, 중국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에 바빴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최근에 민감해진 남북관계와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 6·25 전쟁에 관해선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가 전부였다. 역사적 사건만 알고 있었지 그 전쟁의 실체에 관해선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중국에선 군 복무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군 복무가 남의 일 같았다.

중국에서 지낸지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뉴스를 통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

발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엔 없었던 감정이 올라왔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애국심이었다. 이런 생각은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뀌었다. 전쟁 영화를 챙겨보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 정신, 전우애에 감명 받았고, ‘진짜사나이’를 보면서 군대문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인은 멋있다’라는 것을 느꼈다.

입대. 물론 중간에 망설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다. 남들과 다르게 한국어도 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기에 새로이 접하게 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었다. 병무청에서 입영 신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드디어 조국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되었다. 아버지는 입영통지서를 보신 뒤 자랑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셨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자원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대견스러워하셨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점차 군 입대라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2016년 2월 15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훈련소 주변을 둘러보니 서럽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들의 모습과 격려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에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힘찬 경례를 했다.

육군훈련소에서 5주 동안 지내면서 힘들었지만 많은 추억도 남았다. 군대에서만 쓰는 ‘다’나 ‘까’ 말투.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있을 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었는데 입대하고 나서 바로 말을 잘해야 할 뿐더러 말끝마다 ‘다’나 ‘까’가 올 수 있게 언어를 구사해야 하니 힘들었다. 홀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바쁜 하루일과가 끝나고 다른 훈련병

들은 개인정비시간에 휴식을 취할 때 나는 같은 분대 동기들과 ‘다’ 나 ‘까’ 말투로 대화도 하며 배운 결과, 군대 언어에 제법 빠르게 익숙해져갔다.

첫 일주일간의 정신교육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남북 분단의 원인, 군인의 예절 등에 관한 전혀 들어보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6·25전쟁의 실체와 북한 도발의 진실, 대한민국 군인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영외훈련은 내 자신이 진정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둘째 주엔 제식훈련과 경계훈련이 있었다. 군인의 기본이 되는 제식훈련을 하면서 군 기강 확립을 통해 전우들 간의 단결을 배웠다. 경계훈련은 최전방에서 철책근무를 서는 군인들을 연상케 했는데 수하요령과 보고요령 등을 체득하면서 우리나라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주엔 본격적으로 군인의 제2의 목숨,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영점사격 및 기록사격을 하면서 TV에서만 봤었던 소총을 직접 쏘보니 신기하고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탄알 한발이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내심 실감했다. 당시 소대장님은 “탄알의 무게는 가볍지만 생명의 무게는 무겁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큼 소총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강조하셨다.

그 다음 주엔 수류탄 투척과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 비록 세열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던졌지만 그 외에 교육영상으로 위력을 확인하면서 전쟁의 잔혹함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훈련소 생활의 꽃이었던 각개전투와 행군, 이 훈련들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기억에 남았다. 각개전투 훈련을 하면서 실제 전투상황을 대비하여 생존법과 여러 포복기술을 배웠는데, 하루 종일 장애물 코스를 타면서 포복을 하니 무릎과 팔이 피멍이 들고 살이 까지는 고통을 느꼈다. 체력이 바닥났지만 옆의 전우들과 서로 격려를 하며 재



차 힘을 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텐트를 구축하고 숙영도 경험하면서 지친 몸을 달래며 깊이 잠들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각개전투 훈련을 끝마치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를 몸소 체험했다.

그리고 마지막 행군만이 남았다. 처음으로 해보는 완전군장 차림, 너무 무거워서 어깨에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그렇다고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를 하면 그동안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보람이 없다고 느꼈다. 이왕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열심히 하자는 각오를 다지고 ‘조금만 더 버티자’는 일념으로 묵묵히 행군을 마쳤다. 끝나고 나니 속도 후련했지만 더 나아가 행군을 하는 동안 나의 인내심과 강인함을 길러주었다.

힘들고 지칠 땐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 군대를 오기 전엔 부모님이 내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하고 나니 사소한 것조차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을 때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렇게 군대 생활은 내 자신을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배웠다.

5주라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친해진 입대 동기들과 아쉽지만 작별을 고하고 자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훈련소에 있을 때와 달리 자대에선 계급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상급자들에게 예의를 잘 갖춰야 했다. 다행히 간부님들과 선임들 모두 따뜻한 분들이셔서 잘 챙겨주시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자대생활도 차츰 익숙해져갔다.

내가 부여받은 보직은 작전병이다. 입대하기 전 알고 있었던 보병, 포병 등과 같은 전투보 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작전병의 주요업무는 부대의 현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전파하며, 간부님들을 도와 훈련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휘통제실에서 업무를 보며, 그 과정에서 대대에 속한 많은 간부님들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이 컸다. 그리고 가끔씩 타 부대 간부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빠른 상황대처와 판단도 요구되었다. ‘피하지 못하면 부딪혀라.’라는 말도 있듯이, 선임 사수로부터 차근차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화 받는 요령, 부대 실정 등을 익히고, 현재는 실전에 투입되어 열심히 임무수행 중에 있다. 나의 군 생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등병이라는 신분으로서 한참 배워야 할 업무도 많고 간부 및 선임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군대에서 그런 단점도 간부님들, 선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간 들어올 후임들에게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 때 고민을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선임이 되어줄 것이다.

군인이 존재해야 나라가 든든하듯이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끊임없이 북의 도발이 계속되는 불안한 실태에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위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나라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군인으

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임무도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난 지금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웬지 모를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자원하여 군 복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곳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다. 군대는 자신을 한층 더 성숙하고 멋진 남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계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 계단의 끝에 다다랐을 때 더더욱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중에 제대를 해서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에게 군대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외이주자들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군 입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







## 이방인에서 대한 용사로

수도포병여단 일병 김민수

이방인, 이 단어만큼 나를 잘 설명해주는 단어는 없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간 후에 방학 때 한국을 오긴 했지만, 내 인생의 거의 반은 한국에서 보내지 않았다. 남아공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는 직장 관계로 홍콩에 가신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가서 대학 1학년을 보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미국 그리고 한국, 어느 한 곳에서도 난 오래 머물지 못했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이고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남아공에서는 멀리서 온 동양인, 홍콩에서는 놀러온 관광객, 미국에서는 공부하러온 한국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말 어눌한 교포.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으면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Korea라고 대답은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나는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단어가 낯선, 이방인 같았다. 그런 나에게 징병검사통지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왜 한국 군대를 가야 하지? 난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안 살지도 모르는데 군대를 왜 가? 군대 가서 맞거나 다치면 어떡해?' 하는 의문과 두려움, 그리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변명을 생각했다. 그런 나에게 부모님은 나의 더 큰 미래를 위하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는 하는 게 맞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큰 도움이 되고,

100세 인생에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군인으로 지낸다는 것은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나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비록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나는 결국 한국인이고,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나중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영주권자 자원입대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큰 마음을 먹고 가겠다고 했지만 가족과 헤어져서 입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훈련소에 입영하는 당일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훈련소 생활은 적응하기에 정말 힘들었다. 20년 동안 살면서 나만의 개인 공간과 자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공간에 15명이 누워서 같이 잠을 자고, 샤워실,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지만, 내 개인 공간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아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다. 다행히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자원입대자들과 같이 지내게 되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적응 프로그램으로 배려를 해주었지만, 훈련 중 어려운 한국 단어를 못 알아듣고 조교들과 소대장님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나 자신이 창피하고, 왜 왔을까 후회도 되고, 군대 오기전의 생활들이 그리기 시작했다. 매일 밥만 먹으니까 햄버거, 치킨,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 그리웠고, 남아공 케이프타운 바닷가에서 서핑 하던 시간이 그리웠고,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대학 생활이 그리웠다. 훈련소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 것 같았다. 자꾸 시계를 보게 되어 나중에는 일부러 손목시계를 차지 않았을 정도였다. 절대 적응이 안 될 것 같던 훈련소 생활이 2주 쯤 되니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 때 할아버지께서 인터넷 편지로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보내주셨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 있을 때는 7cm만 자라지만, 아무 테두리가 없는 강물에서는 100cm까지 자란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도 한 곳에

한정되지 말고, 밖으로 나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더 성숙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하셨다. 나는 어항이 아닌 강물에서 자라는 물고기 코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경험 중에 하나가 군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훈련을 받다 보니, 훈련병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어느덧 훈련소 수료일이 다가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훈련병이라는 신분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포병부대로 오게 되었다. 지금은 입대한지 9개월이 되었다. 포병부대가 결코 쉽지 않는 부대이지만, 나는 훈련소 생활보다는 자대 적응이 훨씬 더 쉬웠다. 자대에서는 내가 해야 할 임무가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빨리 군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 선임, 동기들이 도와주었고, 부대 동아리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며 전우들과 잘 지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우리 부대는 절대 학습시간이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군대를 오기 전에 가혹 행위, 사고 등 안 좋은 뉴스를 봐서 나처럼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국 군대 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 자신도 그랬으니깐.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군대 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다. 면회 오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에게 나의 군대 생활을 이야기 하면 모두 하나 같이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등의 말씀을 하신다. 결코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다. 예전 군 생활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6개월 동기제, 동기끼리 같은 생활관 사용, 마음의 편지 같은 것을 통하여 선진 병영문화로 바뀐 것이 그런 예이다. 그래도 자유롭지 못한 군대이다 보니 고립되고 통제된 분위기에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는데, 나는 훈련소에서 나를 깨달았던 나만의 노하우를 사용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이다. 식기 봉사, 화장실 청소, 힘든 작업들, 힘든 훈련을 할 때마다 ‘군대에 오니까 이런 훈련도 해

보네’, ‘내가 언제 포를 쏘아 보겠어’, ‘미국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겠군!’, ‘제대 해서도 이런 짓은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 불침번 시간이나 위병, 탄약고 근무 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때도 혼자 멍하게 서 있지 않고, 과거 내 생활에 대한 반성도 해보고,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미래를 그리면, 지루하던 근무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 또한 군대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평등성과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아직도 학벌, 재산, 직위, 외모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군대는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평등하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는 똑같은 군복을 입고, 식사도 주어진 양만 먹을 수 있고, 똑같은 분량의 일을 한다. 평등한 우리에게 나눠지는 계급은 누구나 다 시간이 되면 갖는 계급장뿐이다. 그리고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전우들과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며,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배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면 몇 시간, 몇 날, 길게는 몇 달을 대기하며 지내는 때가 있었는데, 뉴스에서만 들었던 남북한 상황을 실제로 몸소 체험해 보니, 그동안 외국에 살면서 남북한 뉴스를 남의 나라 뉴스처럼 무관심하게 대했던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제대하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나의 전공인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때 나의 군인 경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남북한 대치가 한창이던 때, 선임과 동기들이 가끔 군대 온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본다. 나는 뜻이 있어 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라틴어로 Amor Fati, 영어로는 Love Fate,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나는 대한민국 군복을 입은 것은 내가 선택한 나의 운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훈련소에서 그렇게 생각하던 남아공의 바닷가와 미국 대학생활을 그리워하던 이방인 김민수가 아니라, 이제 나는 어느덧 TV에 걸그룹이 나오면 큰 소리로 환호하고, 휴가를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동기들과 노래방과 PX가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군인, 대한민국 육군 일병 김민수이다.





##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55사단 171연대 일병 박지훈

인생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의 계절이 있다. 우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계절에 푸른 봄, ‘靑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또 우리에게는 뚜렷한 사계절을 자랑하며 어여쁜 산과 들로 둘러싸여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바친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으로, 그리고 건장한 남자로서 이 땅에 싹을 틔웠다면, 우리 모두가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의무는 어떤 이에게는 부담이, 어떤 이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죽음만큼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꿈 많고 열정 넘치는 시기에 세상과 단절된 군에 입대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청년들은, 추위와 더위에 맞서 싸우고, 고된 훈련을 받고, 밤잠을 설쳐가며 경계근무를 선다. 그들은 21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인내하며 국가 수호라는 거룩한 의무를 묵묵히 수행해 낸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로서 태어난 나에게도 역시 같은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 땅에서 첫 발걸음을 뗀 그 순간부터 청춘의 세월 중 21개월이라는 시간은 국가의 것임을 누구나 알았다. 그렇게 군대는 막연히 미래의 일이

라 여기며 살아가던 중,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으로의 이민이었다.

중학교 1학년, 가족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살기로 결정하였고,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던 나는 부모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친구가 가장 소중한 시기였기에, 그들과 떨어져야 하는 이민은 절대로 반가울리 없었고, 미국에서의 삶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 그리고 슬픔으로 시작되었다. 영어와 담을 쌓고 지냈던 세월은 고스란히 고통이 되어 돌아왔다. 인사 말조차 나누지 못하는 영어실력으로 시작하게 된 미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매일같이 치러지는 전쟁과도 같은 일상에 우울증을 앓았고, 학교 후에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우울증은 그대로 어머니의 눈물이 되었고, 어두운 방안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의 아들을 부둥켜안은 채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하는 일 뿐이었다. 미국에서의 힘겨운 삶은 고스란히 그 땅을 향한 증오로 이어지게 되었다. ‘행복하게 잘 살던 나인데, 왜 이 먼 곳까지,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리도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낯선 땅을 향한 증오와 비례하여 커진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었다. 내가 행복했던 곳,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곳,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그 마음은 자연스레 애국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너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미국에 온 거야. 미국 사람들은 널 보며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판단할 거야.” 라는 말씀이었다. 그때부터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고, 국가대표라면 무엇이든 잘해야지, 무엇이든 이겨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되었다. 시간은 자연스레 흘러 어느덧 미국 생활에도 적응하게 되고, 영어도 배우게 되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며 미국에서도 ‘꽤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가대표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바로 그 믿음이 미국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다. 10대에 건너갔던 나는 어느새 20대가 되어 있었고, 미래의 일로만 생각되던 군대라는 커다란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10년의 세월을 지내며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뜻하였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이 포기되어 병역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주변의 친구들, 학우들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나에게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마치 짠 것처럼 “한국 군대를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시간 낭비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라며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하지만 나의 결정은 처음부터 확고했다. “말로만 애국, 애국하지 말아라” 라는 사람들의 말에 “언젠가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며 받아췌던 중학교 시절부터 나의 입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3학년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군에 자원입대 하겠다.’는 중학교 시절의 계획에 따라, 대학교 3학년을 마친 2015년 봄, 휴학신청을 한 후 입국 준비를 하게 되었다.

2015년 5월, 귀국한 후의 일들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영주권자 자원입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입대 날짜 또한 빠르게 결정되었다. 2015년 7월 20일, 나는 육군훈련소로 입소하게 되었다. 드디어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입대하게 되어, 3~4살 어린 동기, 선·후임들과 지내게 된 군 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분명 크나큰 위기도 있었고, 심신이 지치는 일들 또



한 있었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는 미국에서 10여 년을 보냈던 나에게 분명 쉽사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자원입대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온전한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였기에, 후회가 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는 온전한 나만의 책임이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훈련이 힘들고, 몸이 고될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괜찮다”라는 말 뿐이었다. 모든 것이 나의 의지이자 나의 결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남들과는 다르게 자원입대를 하였던 나였기에, 스스로에게도 ‘넌 잘 해내야 해’ 라는 말을 주문처럼 하였고, ‘결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라는 생각 또한 습관처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결코 쉽지 않은 군 생활은 그러한 의지를 자꾸만 무너뜨리곤 하였다. 나도 남들처럼 서서히 불평,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 힘든 군 생활은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애국심으로 푹푹 뭉쳐 결정한 입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영원히 멈춰 있을 것 같은 국방부의 시계도 어느덧 꽤 많이 돌아갔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훈련병의 시절도 끝이 났고, 어느덧 상병을 바라보고 있는 어엿한 대한민국 육군 일병이 되어 있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대 왜 왔어?” 라는 질문이다. 그때마다 장난스럽게 오른쪽 팔을 가리키며 “여기에 태극기 달려고 왔다!” 라고 말하곤 한다. 장난스런 말이지만, 분명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고, 나의 입대 이유를 가장 적절히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온 것도, 누군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기에 다른 말로는 입대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 나는 나의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대를 결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서 당연히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 오른쪽 팔에 태극기를 달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 틀림없다.

육군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던 시절, 소대원들과 오와 열을 맞추어 분대장의 인솔에 따라 저녁을 먹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생활관 앞에서 힘차게 펼럭이던 태극기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일어난 일하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기억이고, 사실 남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민망한 기억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다. 거대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먼 타국에서, 남의 나라에서, 남의 민족 틈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며 마음속으로 그리워하였던 내 조국과 내 민족, 그리고 내 땅, 바로 그 대한민국의 땅 위에 내가 서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내가 지켜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태극기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10개월의 남은 군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 또 불평할 것이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오른쪽 팔에 달고 있는 이 태극기가 나를 지금껏 있게 해준 내 인생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나를 있게 해준 나의 조국을 위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남은 군 복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꺼이 나의 청춘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다. 내 청춘에서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었다고.



## 군대에서 받은 선물

1175공병단 158대대 일병 김채현

나는 현재 육군 수도군단 1175공병단 158대대 2중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일병 김채현이다. 어렸을 때 강원도 춘천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10년 정도를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었다.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한 덕에 홍콩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칠 즈음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대학 동기들이 입대하는 것을 보면서 군 입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홍콩에 계속 거주하거나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경우에 군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군대에 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다. 군대를 가지 않을 경우에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의 취직 등 영리활동이 제한되고,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군 입대를 결정하게 되었다.

2015년 9월 21일에 육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리고 홍콩에서도 항상 한국 친구들과 같이 생활했지만 초등학생 이후로 이렇게 많은 또래 남자들이 모인 것을 처음 보았다. 항상 대다수의 외국인 사이에서

소수의 한국인 학생으로서 생활하다가 훈련소에서 이렇게 많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니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이 친구들과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설렘 반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 대신 훈련소까지 같이 와준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입영심사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훈련소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나와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란 훈련소 동기들이 많았다는 점이었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온 친구들도 많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지 않은 동기들도 만나게 되었다. 정신 교육을 받고 기초 훈련을 받으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훈련소 분대장들이 하는 말을 재빠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군대 말투도 적응하기 힘들어서 고생을 하였고, 또 다른 동기들이 추석 때 부모님과 전화를 할 때, 수신자 요금 부담 통화로는 국제전화를 할 수 없어서 우울하기도 하였다. 처음 완전군장을 하고 경계교장으로 가는 1시간 정도의 행군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내가 왜 자원입대를 하여서 다른 친구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내 발목을 묶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지 후회되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1~2주가 지나면서 비록 동기들과 문화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 그 안에서의 공통점을 찾고 또 다른 점들을 공유하며 훈련소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한, 훈련소 분대장들이 걸으려는 차가워보였지만, 외국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어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점점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사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한번 사는 인생을 내가 태어난 나라의 군인으로서 외국 친구들이 해보지 못한 사격도 마쳤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힘들었던 훈련소에서의 시간도 점점 빨리 가기 시작했고, 수료하는 날 비록 군 생활의 시작을 한 것일 뿐이었지만, 나는 신병 훈련을 마쳤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

럽고 뿌듯하였다.

훈련소에서 나는 수도군단으로 배치 받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안양으로 가서 수도군단사령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신병 분류를 맡은 장교님이 나의 보직을 말씀해 주셨다. 훈련소에서 어학병 특기시험에서 10점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기대와는 달라 엄청난 충격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를 분류한 장교님이 처음에는 회계학과인 전공을 살려 회계행정 쪽으로 분류해 주시려 하셨으나, 편제가 부족하여 야전공병으로 분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훈련소에서 친구들이 보병, 포병, 기갑병, 공병 중에서도 포병과 공병이 제일 힘들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복무하고 있는 부천에 도착할 때까지 걱정만 가득하였다.

그렇게 자대에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대대전술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자마자 5일 동안이나 야외숙영을 하게 되어서 불쌍하다고 하는 동기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심란하였다. 그렇게 물자와 장비 준비를 도운 뒤, 훈련장으로 가게 되었다. 훈련 간에 나와 내 동기는 전입온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지는 않고 본부소대를 도와 주둔지를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첫 날에 행정보급관님이 나에게 작은 가위를 주시면서 땅에서 길쭉하게 자라있는 갈대들을 정리하라고 하셨다. 나는 자대에 와서 처음으로 받은 개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갈대를 하나하나 정리하였다.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갈대를 정리하다 보니 벌써 해질 무렵이었다. 다음날 아침, 행정보급관님이 정리된 주둔지를 보고 칭찬해 주시며 내가 풀들을 정리한 덕에 길게 자라난 풀들에 굽히거나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겠다고 좋아하셨다. 대대장님도 주둔지에 오셔서 내가 풀을 다 잘라놓아서 깔끔해졌다고 칭찬해 주셨다. 이 일을 계기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남들이 힘들다는 공

병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지만, 마음가짐에 따라서 군 생활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훈련이 끝나고 자대로 돌아와서도 항상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사소한 일이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때마침 공석이 된 소대 무전병으로 임무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소대 무전병을 열심히 배워서 흑한기 훈련까지 마치게 되었다. 무전병으로 첫 훈련을 잘 마친 뒤, 나의 보직이 또 바뀌게 되었다. 행정보급관님과 중대장님이 나를 중대 행정병으로 추천해 주신 것이었다. 무전병으로서의 임무수행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간부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에 따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여서 일과시간 내에 주어진 일을 끝내지 못해 개인정비시간에도 밀린 업무를 하게 되었다. 동기들이 쉬고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해야 할 때면 후회도 되었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도 능숙해지고 웬만한 업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되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간부영어회의와 미군과의 한미연합회의 간에 통역병을 맡으면서 처음 훈련소에서 원했던 임무 수행을 전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점점 자대에 적응해 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을 보람차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외국인 친구들이 졸업학년이 되고 수습사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인으로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나는 군대에 있지만 여기에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며 책상에만 앉아있고 대학생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하여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체력을 더 길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자율체육시간과 개인정비시간 때 시간을 내어 체력단련실에

서 근력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달리기를 하여서 입대할 때보다 5kg 이상 감량하게 되었다. 외출 시에는 경제학 서적을 구입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가져와 입대 전 공부하였던 것들을 복습하고, 새로운 지식도 얻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군대에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중대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나는 업무에 충실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군인이 되었다.

입대한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힘들 때도 있었고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군대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대답하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를 돕고, 임무수행을 하면서 책임감과 근면성실함을 얻게 되었다. 물론 통제받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더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미래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보람차게 보내며 내 자신이 더욱 발전하는 사람이 되며 동시에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 누구라도 군대에 와서 바른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군 복무를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재산을 얻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내 평생의 사랑거리

17사단 보충중대 상병 심우석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유학 가 있는 누나를 보러 미국에 몇 번 방문한 기억이 있다. 언어를 전혀 몰라도 먼저 웃는 얼굴로 환대해 주는 사람이 가득한 나라. 미국에 대한 내 첫인상이었다. 그 후 운이 좋게도 우리 가족은 먼저 이민 간 막내 이모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7년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다.

미국에서 오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군대는 내 인생에서 멀고 먼 곳이라고 느꼈다. 또한 당연히 미국 영주권자로서 특혜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내 주변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통명스럽게 “이제 슬슬 입대해야 하니까 그렇지. 넌 영주권자이니까 안 가도 돼서 좋겠네?”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그들은 가능하면 피해야 할 곳, 힘든 곳, 시간을 낭비하는 곳으로만 군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당시에는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과 같은 몇몇 사건사고로 인해 군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았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말이다. 글로벌한 시대에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한국인이고 싶지 않으면 이민을 떠나 거주지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랜 해외 생활은 오히려 나 자신도 모르게 모국에 대한 애정을 더 키웠다. 긴 고민 끝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기 싫다는 눈치셨지만, 아버지는 장하다며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물론 당당하게 군대에 일대할 것이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다. 군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섰으면서도 6·25 한국 전쟁 때 종군기자로 활동하신 친할아버지와 KLO부대에서 근무하며 계급과 군번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외할아버지께 당당한 손자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다. 쌍둥이 늦둥이들이 한꺼번에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매우 죄송스러웠지만, 나는 쌍둥이 형과 2015년 3월 23일 육군훈련소로 향했다.

쌍둥이 형인 심우현 상병과 같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에도, 17사단으로 전입을 왔을 때에도 언어, 문화, 그리고 정서가 많이 달라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훈련 중 숨이 차서 기절할 것 같으면 기절할 때까지, 다리가 터질 것 같으면 터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맡은 임무는 꼭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복무 중 '15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통역병으로 파견갈 기회를 얻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을 때는 몸이 편해져 나태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군사용어를 공부하였다. 내가 맡은 모든 통번역 내용들과 자료들이 합동참모의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회의에 사용될 때 큰 자부심을 느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농구경기 심판 및 의전들을 통역할 때는 내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놓인 다리와의도 같아 새롭고 흥미로웠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예전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가지던 시기에 비해 내가 당연히 방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2016년 4월, 나는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장병투어’에 선발되는 행운도 얻었다. 용산 전쟁기념관, 천암함의 잔재가 남아있는 평택 2함대,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이 계시는 대전현충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육·해·공군의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투어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국가관의 기틀을 더욱 굳게 잡게 되었고 애국심과 우리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군복무 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영주권이 있는데 군대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신 있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면 군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며, 입대는 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내주는 격려는 나를 더욱 의젓하고 탄탄한 대한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물론 후회를 한 번도 안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고된 훈련을 할 때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힘든 건 군 생활하는 모든 전우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게 되었다.

물론 사회보다 제한된 곳에서 21개월을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교육을 받았으며, 전역할 때까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짧고도 긴 군 생활, 상병인 나는 이제 도달할 계급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비록 전역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내가 접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확신한다. 정해진 일과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었고,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다. 각종 훈련과 분대장 역할을 통해 올바르게 빠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 군 생활은 쉽지 않았다. 약 10년간의 미국 유학생생활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낯설게 만들었고, 군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었다. 하지만 중대장님을 비롯한 소대장님과 행정정보관님, 그리고 전우들은 끝까지 나를 보

들어주고 기다려 주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가족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는 이제 ‘기피할 곳’에서 ‘자랑스러운 곳’으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또 잊고 지내던 것들을 되새겨 주었다. 예의, 성실, 공동체의식 같은 것들,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까? 뼈뚫한 일정 속에서 지내다 보니 주위에 간부님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온 전우들이 한 가족처럼 느껴졌으며, 나에게 끈끈한 정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 준 곳도 군대였다. 전역까지 약 7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비록 짧지만 성공적인 군 생활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나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과 군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알리고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군 복무는 내 평생의 자랑거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최근 언론에서 시사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너무 나쁜 점만을 보여주어 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면만으로 군 전체를 판단하고 헐뜯는 것이 여기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골육지정(骨肉之情)의 정을 나누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언제나 이곳을 그리워할 것이다. 영주권을 가진 후배들에게도 군에 입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끊임없이 권유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과 군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리워할 것이다.





## 군에서 성금 자란 내 아들

안성숙(복지단 춘천지원본부 상병 이승윤의 모)

“엄마! 나 군대 갈래요.”

“이게 뭘 소리래 군대라니? 남들은 가지 않으려고 별별 비리를 저질러서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실리는 그 군대를 기꺼이 가시겠다고? 아니 아들, 생각은 가상하지만 군대는 장난처럼 가는 게 아니야. 더구나 너처럼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애들은 적응 하기가도 쉽지 않고 도리어 민폐야 민폐.”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런 거창한 이유나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데, 그 중요한 20대의 황금 같은 2년을 군대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왜 군대를 가려고 하지? 혹시 우리 아들이 군대에 대한 환상이 있나?’

“TV나 영화에 나오는 군대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울 아들 장래 꿈이 국회의원이 나 대통령?”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한국 군대가 왜 필요하나?”, “군대 가면 영주권에 문제생긴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헐박을 했음에도 통하지 않았고, 어떤 말로도 승윤이의 군 입대 의지를 말릴 수 없어서 결국 아들은 자신이 꿈꾸던 군 입대 신청을 했다.

2015년 8월 24일, 논산으로 입영하는 날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날이었다. 그 며칠 전에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병사가 중상을 입었고,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포격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뒤숭숭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에 더 마음이 불편했었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께 자신의 아들도 군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연대장님의 말씀이 동지애적 연민처럼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래, 설마 뭘 일이 일어나겠어? 북한이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일이 한두 번이야. 자주 있는 일이잖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애써 위로 했지만 연병장에서 아들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꼭 참았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원래 울보 엄마라 아들은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한 번도 좌향좌, 우향우, 이런 제식훈련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어서 한국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국 아이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를 텐데 힘들지 않을까?’

‘평소 장이 약한데 먹는 것이 안 맞아서 배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지?’

무수한 걱정들이 일었지만 결론은 다 쓸데없는 기우였다.

승윤이는 너무도 적응을 잘했고, 아무런 문제없이 훈련을 받았다. 동기라는 친구들이 생겨서 힘든 생활이었지만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었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끈끈한 동지애를 쌓아가면서 훈련을 마쳤다. 수료식에서 만난 아들은 털 영글었지만 제법 군인 냄새가 폴폴 나는 진짜 사나이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요리솜씨가 별로인 엄마의 음식보다 군대 밥이 맛있었고, 영화와는 다른 군 생활이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미래에 인생을 살아가는 긴 시간 동안에 어느 때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배운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싸워가면서 바꾸고자 했던 아들의 습관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군대를 보내야 사람 된다는 그 어록들이 다 맞는 말인가 보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되어 생활하는 아들을 보면서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과 그전보다 훨씬 소통이 잘 되는 참한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군대는 계급사회의 위계질서를 배우고,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함께하며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협동을 배우고, 조국을 위해 한몸 받친다는 희생정신을 배우고, 제복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존엄을 배우고, 그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나라사랑을 배우는 참 괜찮은 곳이다.

아롱이다롱이로 살다가 군대라는 조금은 닫혀있는 공간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피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곳임을 알고 있다. 지금처럼 남들과 소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겐 더욱 힘든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다른 곳에서는 돈을 주고도 배울 수도 없는 특별한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평생을 이어나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 위에 내가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자긍심도 얻을 것이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미국의 공항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입국장을 나오면 그곳에서 다른 가족이나 다른 일행들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와 환호를 해 준다. 그들은 미국의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미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기에, 세계 여러 곳에 파병 되었다가 돌아오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쳐준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군인이고 그들이 어

편 소임을 맡았는지도 모르지만, 제복을 입고 있다는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꽤 괜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업이지만, 그 군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안위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비록 미국 군인들처럼 박수 받는 일들은 없지만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소중한 우리 아들이 있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도 대한민국의 하루가 지탱되고 있다 본다. 그래서 격하게 자랑한다. 올 아들 덕에 니들이 편하게 잠을 잔다고.

군대 체질이라는 농담을 하면서도 애잔하고 마음 한 켠에는 불안함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학교 가는 아이들 배웅하면서도 늘 느껴지는 엄마의 괜한 걱정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까무잡잡한 볼을 보면서 잘 먹고 있구나 생각하고, 각 잡힌 군복에 베레모가 한층 잘 어울리고, 한 개이던 작대기가 두개로 바뀌면서 '내 아들도 후임이 들어온 고참이 되었구나!' 하는 뿌듯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었다.

한국어 언어소통에 가끔 실수가 있어 재미있는 경험담을 말하고, 족구도 잘못해서 헛발질 하던 일상이 있었지만, 사격대회에서 1등해서 포상휴가도 받고 나름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왜 내가 반대를 했을까?' 아마 못할 것이라 속단 했었던 것 같다.

이젠 믿고 기다린다. 믿으면 될 것이다. 충분히 잘 견디고 잘 지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성큼 자란 아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 나의 나라, 대한민국

남수단재건지원단 상병 성승현

“너는 군대 갈 마음이 있니?” “당연하지! 나도 남자인 걸!” 어릴 적 식사하던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나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군대에 입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신 때가 있다. 부모님의 이러한 장난 섞인 물음을 나에 대한 도발로 생각한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고, 부모님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귀엽다는 듯 웃으셨다. 사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 부모님은 처음부터 내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길 원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의기야양하게 대답하는 나를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이었다.

약 3년 전, 나는 태어난 곳이자 내 고향인 과테말라를 떠나 부모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색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나는 정체성을 빼앗긴 것만 같았고, 온갖 불만과 악감정을 키워가며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늦게 찾아온 사춘기 덕에 뭐든 뜻대로 안되고 나면 남들과 ‘부적합한 환경’을 탓해야지만 직성이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 나는 대한민국이 아닌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이라 소개하자 동기들과 교수님은 엄청난 호기심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다. 영어와 스페인어에



도 능통한데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만 하는 21개월의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부러워하던 친구들과 수강생들의 반응을 들으며 나는 어리석게도 기분이 좋기만 했다. 출생지를 떠난 후에 처음으로 존중과 환영을 받은 것 같아 짧지만 값진 순간이었다.

그렇게 등교를 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어떤 행복한 꿈보다 그때 그 현실이 더 행복할 것만 같았다.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밟았을 때 아무도 날 기다려주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던 그 외롭던 시절과는 다른, 내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대한민국을 만끽하면서, 부모님을 절망시켰던 과거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용기 내어 부모님께 전화로 용서를 빌었다. 집 나간 자식을 찾은 마냥 당연하게도 기쁘게 반겨주실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억지의 슬픈 웃음소리를 자아내며 나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적용이 돼 가고 있다니 기쁘구나. 공부는 잘 되가니? 나는 점점 한국말을 까먹고 있어 큰일이다.”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글썽거렸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반응에 나는 아직까지도 그때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차라리 어머니가 큰소리로 이제야 깨달았냐며 혼을 내주었으면 했지만 나의 어머니는 몹시 울적해하고 지쳐있었다.

어머니도 25년 전 대한민국을 떠나 낯선 과테말라에서 외로움, 언어장벽과 싸워가며 나와 누나 둘을 키우셨다.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고향을 자주 찾아가지 못했던 어머니의 “한국말이 점점 잊어져 간다.”는 한숨 섞인 말이 입에서 나오는 피눈물로 들리기 시작했다. 조국과 그의 국민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어머니는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생활하면서 고향과 그곳의 향기를 매순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칭찬과 위로를 원해서 걸었던 전화는 또 다른 고민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기분으로 대학수업을 끝마치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불을 켜는 순간 익숙한 구조와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정리가 안 돼 있던 책상, 악취가 심해 단혀있던 옷장, 그리고 작고 불편한 침대. 다 그대로였지만 낯설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쳐들어온 것만 같은 느낌이 가지질 않아 잠을 설쳤다. 그리고 그날은 나의 가치관에 변화를 준 지중한 시간이었다. 내가 대한민국을 내 집과 내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희생을 해야지만 부모님도 나에게 대한 당당함과 함께 편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는 자원입대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됐던 것이다.

예상대로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했다. “왜 굳이 시간을 낭비하려 하나”, “평생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 이어졌다. 애국가도 아직 다 못 외운 나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의 얘기들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정해졌고 그렇게 4월 6일, 나의 입대일은 달력에 동그라미로 쳐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다시 새로운 환경의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나는 육군훈련소에 도착했다. 나와 같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던 청년들, 이제는 내 전우가 될 사람들과 그들을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가족을 보니 웬지 모르게 뒤늦은 후회가 되면서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 번 내 의지로 왔다는 다짐을 기억하며, 용감하게 연병장으로 향해 군인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27연대 5중대 1소대 1분대 10번 훈련병. 훈련소에 도착하자마자 내 소속과 번호를 머릿속에 반복하면서 주문처럼 외웠다. 성승현이라는 내 이름은 이미 내 이름이 아니었다. 모두가 훈련병이라는 이름아래 본격적인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한 훈련과 생활이 시작되었다. 날이 거듭될수록 서먹함은 사라졌고, 전우애라 부르는 그 무언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모든 감정을 내 옆의 나와 같은 훈련병들과 공유했다. 처음은 고되기만

했던 훈련들도 전우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났고 마지막엔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딱딱한 환경과 모든 명령에 복종하고 ‘해야만’ 하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감이 들기 보다는 옆의 전우들과 써가는 하루하루의 추억이 너무 소중한데. 처음엔 좁고 불편했던 침상이 능름한 전우들과 함께라면 웬만한 고급 침대보다 훨씬 달달한 꿀잠을 주었다.

마지막 훈련이 끝나고 뒤돌아보니, 그렇게 느리게만 느껴졌던 5주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제는 나의 형들로 느껴졌던 동기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무척 섭섭하고 안타까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다함께 건강하게 수료를 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러웠다. 흠어진 후에도 각자 부대에서 주어진 임무를 맡아 멋지게 수행해 나갈 모습들을 생각하며 설렘다.



“충성! 신고합니다. 이병 성승현은 국군수송사령부로부터 제1철도수송지원대로의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나의 군 생활 다음 챕터를 힘찬 목소리와 함께 시작했다. 부족하고 배울 게 많은 막내 생활로 시작했고, 조금씩 후임들이 생기자 든든한 사나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반복된 일상이 너무나 무료해 나는 지쳐버리고 말았다. 처음에 새겼던 다짐이라든지, 줄기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빛부대 6진 파병 선발’이란 글을 보았을 때 예전의 열정 가득했던 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며 뭔가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다. 훌륭하고 탁월한 지원자들 속에서 선발이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임을 알았지만, 평생 후회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했다. 선발 결과 공지를 기다리며 나는 매일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기를 달고 아프리카에서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너무나도 간절했는지 운 좋게 선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기분이 좋아 떠나가려는 나를 보며 아쉬워하던 선·후임들 앞에서 난 눈치도 없이 뛰어다니며 승리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3일 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집 장소인 국제평화지원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정신과 체력을 단단히 단련시키며, 소집교육과 파병준비기간을 마치고 우리는 남수단에서 희망과 평화를 심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탔다. 20여 년의 내전 끝의 독립한 남수단의 첫인상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파병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어 들떠있고 신나 있던 나는 남수단의 열악하고 험악한 현장을 보는 순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버렸다. 주어진 직책과 임무 선 안에서만이 아닌 최선과 헌신을 다해 재건지원에 임할 것을.

처음에는 무식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난민보호소에 급수지원을 나가 죽어가는 목숨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력함을 느꼈고 의지가 떨어져 갔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주는 것, 그뿐이었다.

사탕을 쥐어주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현지 어린이들을 보면서 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였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자원입대도, 파병도,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한 것들이었을까?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고민해 보며 나의 남은 파병생활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내가 진실로 행복을 느꼈던 것은 현지인들과 다양한 국가에서 파병을 온 군인들과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가 공유하며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통하였다고 느끼는 아주 찰나 같은 순간들이었다. 3년 전 대학교에서 친구들이 처음 생겼을 때처럼 말이다. 누군가가 내게 감사할 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나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눈빛을 서로 교환할 때의 행복은 그 어떤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쾌락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아프리카의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활력소였다. 이 ‘행복’은 나의 군 생활의 중점이자 나를 커다란 마음을 갖도록 성장시켜준 힘이다.

한빛부대의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활동상을 널리 알리는 부대원인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기만 하다. 자원입대를 결심했던 그때에 그토록 원했던 보람찬 군 생활을 하게 해 준 한빛부대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대한민국의 찬사와 남수단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값진 땀을 흘리는 우리 한빛부대가 진정한 ‘태양의 후예’이다. 끝까지 열정과 힘을 다해 임무수행을 마칠 그날까지. “한빛부대 열정을! 남수단의 평화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이렇게 나도 대한민국 남자인 것을 부모님과 모든 분들께 자신 있게 알리고 증명한다.



## 640일의 틈새

701특공연대 상병 이광수

나는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네 살부터 한국을 떠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외에서 살았다. 외국인 친구들이 병역의무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 나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같이 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선배들과 친구들은 모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저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한국으로 와서 육군으로 자원입대했다.

입대를 하고 나서 군에 대한 나의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2년을 낭비한다는 생각으로 입대했지만 군대는 내 생각보다 훨씬 얻을 게 많은 곳이었다. 내가 군복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애국심과 협동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고, 한국어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역시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대 안에서는 훈련, 체력단련 등 상상했던 것들과 달리 매주 집중교육의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시간은 해외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오랜 시간동안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애국심이 있었지만,

군 생활을 통해 역사나 올바른 안보관 같은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현실적인 남북 상황을 체감하게 되면서 그 자부심과 애국심이 한 층 더 강해졌다.

군대라는 전체적인 틀과 시스템을 통해 애국심이 짙어졌다면, 군대 내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동기간의 관계 등 군대 내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협동심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체득했다. 생각만큼 쉽진 않았지만, 나는 곧 나와 비슷한 상황으로 입대하게 된 전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곧 적응하게 되었다. 또한 부대 안에서 동기들과 선임들이 나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챙겨주었다. 업무상 어려운 단어를 마주치게 되면 동기와 선임들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직접 도와주기도 하였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배려 문화 덕분에 나는 부대와 업무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힘든 훈련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행군 훈련을 할 때 체력적으로 힘든 나를 천천히 손잡아 주고 같이 쉬어주고 숨이 달려도 끝까지 이끌어 주었다. 다 같이 힘차게 구호나 군가를 부를 때면 사기가 증진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 혼자 했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훈련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우들과 같이 협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전우들 간의 뜨거운 협동심이 힘들었던 초반의 적응도, 고된 훈련도 모두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또한 군복무를 통해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도 얻었다. 그 중 하나는 2015년 10월에 열렸던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통역병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것이다. 처음엔 군 복무 중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뜻밖의 좋은 기회로 특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 역량에도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전우들을 만나면서 우호를 다지고 인류애를 되새길 수 있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 대회는 약 110개국에서 8,700여 명의 군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통역병들은 각자 국가를 분

담해 임무를 수행했다. 타국 군인들과 대화하고 함께 한 시간들은 소중한 것이며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러 국가의 군인들은 서로 구기 종목으로 경쟁했고, 흥미진진하면서도 재미있는 추억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에 각 나라는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수많은 국가와 군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각 구기 종목에서 빛날 때마다 자랑스러웠고, 각 경기시작 전에 울리는 애국가에 당당히 경례하며 또 한 번의 애국심이 치솟았다. 통역병으로 특기를 살리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뿌듯했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이어갈 수 있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체험인 것 같아 뜻깊었다.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군대 내의 보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나는 인사과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업무 능력을 배웠다. 많은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기들보다 다소 떨어졌던 한국어 어휘 수준과 문장 구성력이 상당히 향상됐다. 또한 직속상관이나 상급자에게 취해야 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는데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간부 휴가를 관리하는 업무와 진급에 참고하는 각종 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를 도맡아 책임지게 되면서 하나라도 누락될까봐 매사에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들었다.

그러나 자원입대해서 군 생활을 해나가던 중 나는 병영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뻔한 적도 있었다. 나는 상세불명의 이유로 발이 부었던 날들이 많았다. 여러 차례 병원을 가면서 검사를 받았지만 고통의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직속상관의 추천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통풍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통풍 발작이라는 것을 겪고 있었으며 현역부적합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대에서 정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보장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훈련이나 무리가 가는 체력단련은 열외하고 군의관님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걷는 게 힘들고 느린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 나의 편의를 위해 애써주었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고 내 몸을 혼자서 챙겨야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일인데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전우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이 말은 내가 군 생활 중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데미안」의 한 구절이다. 병역의 의무는 사실 우리 같은 재외국민에게는 큰 짐이다. 그저 이름으로 또는 부모님의 나라로 다가오는 대한민국이 그 자체로 낯설고 피상적인 세계로 느껴지는 건 아마 나뿐 아니라 다른 재외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그 낯선 땅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나에게서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였다. 군 입대를 깊게 생각해 본 재외 국민이라면 아마 나의 입대 전 불안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재외 동포들이 느끼는 이러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 말하고 싶다. 솔직히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자원입대해서 힘든 날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체험했던 순간들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낼 만큼 뜻깊고 소중했다. 또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건 군 입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과 겪지 못한 문화 사이, 나는 당혹스러웠고 답답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듯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부딪치는데 마다하지 않았다. 스스로 변화하고 주변 환경을 받아들여 노력할 때, 군 생활 그 자체가 발판이 되어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힘든 전우를 저버리지 않는 대한민국 육군이 나의 전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접하고 같은 조국의 전우들과 지냄으로서 애국심과 협동심으로 강력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

대에서 개인의 장점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거기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신체적 부상 같은 부분의 걱정도 덜 수 있었다.

나는 입대를 앞둔 재외동포들의 불안을 잘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겨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권한다. 단순히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닌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으로서 또 나 자신을 가두고 있던 알을 깨트릴 하나의 틈으로서 말이다. 이제 나는 해외 친구들과 가족한테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모두들 나의 병역 의무를 존중한다.





## 나라를 얻는 방법

3군수지원사령부 50탄약대대 상병 김우진

나는 군대에 오지 않을 이유들이 있었다. 영국에서 태어나 오래 살면서 영주권 혜택을 보았고, 미국 명문대를 졸업했다.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일 해본 경험도 있어서 해외에서 취직할 기회가 많았다. 미국인 여자친구와 4년째 사귀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래를 함께할 계획도 다 세워 놨다. 하지만, 군복무를 위해 그 미래를 연기하고 2015년 8월 10일에 입대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지 말라고 했다.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제대하면 당분간 해외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군대 갈 필요 없네. 충고란 기껏 이런 절망적인 말 뿐이었다. 그냥 너의 소중한 20대의 2년을 버린다고 생각해. 조용히 살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말을 믿었다. 군 복무는 오직 우리 가족을 지켜준 나라에게 갚을 빚 정도로 봤다. 21개월 동안 새로운 것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넓은 세상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고, 매사에 강한 자제력을 가지고 생활해 왔으며, 인생행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경제학 박사과정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할 준비도 되었다. 그러기에 과연 군대에서 무

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입대한지 10개월이 다 된 지금 부대에 자신을 투자할수록 군 복무가 더욱 의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 투자할수록, 지키는 이 땅이 더욱 내 땅이 되었다. 결국, 군대를 통해 나라를 얻었다.

503 탄약중대에 인사서무행정병으로 전입한 뒤 며칠 만에 대대장님을 만났다. 같이 전입한 네 명의 신병은 탁자에 둘러앉아서, 어깨는 쪽 피고, 등뼈를 고정한 자세로 무릎 위에 주먹을 쥐고 앉아 있었다. 앞에는 김이 다 빠진 채 그대로 있는 커피 4잔. 우리를 바라보는 대대장님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는 지는 가을햇빛에 윤곽이 그려져 있었다.

“마지막 질문?” 이라고 물었다. “없습니다!” 라고 함께 있는 신병 3명이 외쳤다.

나는 손을 들었다. “인사계로 보직을 받았는데” 라는 서툰 말로 시작하며,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나는 한국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고 한글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한국말은 부모님과 생활하는 정도였고 평생 친구들과 영어로만 대화했다. 훈련소에서는 ‘금일’이 금요일의 줄임말인 줄 알았고, “이상입니다”가 뭔가가 이상하다는 뜻으로 생각했다. 왜 3일 연속 금요일인지, 보고할 때마다 뭐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대대장님은 나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시며, “일단 해보자.”

이제는 나에게 딱 맞는 보직과 부대를 만난 것으로 믿는다. 행정반에 걸려오는 전화를 알아듣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었고, 인사계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또 한 달이 더 지났다. 일과에 조금 여유를 찾고 나니, 부대 안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건의했다.

한 프로젝트는 근무점수제도이다. 작년 겨울 직전에 부대 3분의1이 전역했지만 신병들은

몇 명만 졸졸 들어왔다. 근무를 거의 매일 밤에 서는 자체가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

“짐승이 된 느낌이다. 오직 물리적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잘 수 있는 순간만 열망한다.”라고 12월 일기에 기록했다. 내가 건의하게 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모든 병사의 근무순서를 기록해서 피로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다음 날 근무는 그 점수를 참고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었다. 중대장님은 승인해 주었고, 점수체계를 실행한 후 설문조사결과 97% 만족도를 나타냈다. 나는 더 효율적, 규칙적, 그리고 투명한 근무체계를 만들고 싶었다. 따라서 모두의 피로도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평소에 더 생산적으로 일과를 하게 하려는 희망이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영어동아리. 종종 병사나 간부들이 와서 어떤 영어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나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앞으로 교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깨닫는 표정이 점점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시간이 조금 지나, 공식적인 동아리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르치면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했다. 중대장님은 완전히 환영해 주셨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TOEIC



이나 TEPS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인원들에게 포상까지도 약속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보람뿐만 아니라, 군대가 주는 재밌는 추억과 이야기, 유용한 교훈들이 떠오른다. 체육대회 단체줄넘기를 위해 이틀 동안 간부와 병사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우수한 추억, 전혀 예상치 못

하계 국방TV의 〈행복한 군대 이야기〉 프로그램에 칭찬 받은 군인으로 출연한 색다른 추억, 걸그룹 투아이스의 〈우아하게〉 댄스를 선임과 함께 배우고 분장까지 해서 설날 장기자랑에서 2등을 차지한 기억.

그리고 몸은 부대에 있어도 생각은 항상 자유롭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생각도 깊어졌다. 원래 감정은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미국에서 나를 매일 기다려주는 여자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동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 “예전 같으면 이런 슬픔은 억누르겠지만, 이제는 간직하고 싶다. 왜냐하면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군대에서 얻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한국의 정체성이다. 갑자기 아픈 동기를 대신해 누군가 자발적으로 근무에 나설 때, 선임이 후임에게 총기 관리법을 성실히 가르칠 때, 그리고 새벽에 간부가 구토하는 병사를 응급실로 급히 데리고 갈 때, 이러한 때 한국인들의 단결심을 목격했다. 또한 군대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식으로 배웠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자유를 갈망했던 분들이 겪었던 희생에 대해서 들었다. 그분들이 삶을 바쳤기 때문에, 내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었고, 내가 지금 누리는 축복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군대에서 매일 목적과 의미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생각도 없이 시간을 보냈으면, 일 년이 되어도 당연히 보람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미는 섬기는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입대 전에 들었던 말과 반대로, 군대는 발전을 억누르거나 막지 않았다. 대신, 부대에서는 술선과 독창력이 환영받았다. 군 복무의 의미는 바로 본인의 어떠한 능력, 경험, 재능을 바쳐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말도 잘못 할지라도 말이다.



## 바나나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수송사 1철도수송지원대대 상병 박정훈

우리가족은 미국이란 나라와 펍 인연이 깊은 편이다. 나의 외할아버지께서는 1972년 공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후 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다. 고등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어머니께서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국 유학을 권하셨고 나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던 때, 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고전했지만 문화적으로 미국 친구들과 적응하는 데에도 남모를 고충을 겪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에게 손을 흔들거나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를 하는데, 어른들만 보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꾸벅 숙이는 나의 모습에 선생님들은 “나에게 절(bow)할 필요가 없다.”며 웃으며 말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또 하루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미 숙지하고 있던 단어의 새로운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나나’란 단어였다. 흔히 열대과일로만 생각했던 바나나의 인종적 은어의 뜻은 바로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아시아인’이었던 것이다. 딱히 비하성의 단어는 아니지만 이 은어의 뜻을 알게 된 후 난 처음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범주를 넘어서 ‘나는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좀 더 강했다. 당시 나보다 유창하게 영어도 잘하고 미국 친구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이 일부분 부러웠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주위 환경에 맞춰 흡수되려는 노력을 더 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나는 미국이란 다민족국가에서 나만의 고유한 특색과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기에는 내 뿌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교감이 부족했고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내 모국(home-country)에 대한 의미도 같이 퇴색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학업과 교우관계에도 서서히 적응이 되어 여유가 생길 때쯤, 나는 학교의 추천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필수 일정 중 하나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내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만 그치고 있었던 일정에서 뜻하지 않게 내 마음을 움직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월남전 추모비 옆에 자리하고 있던 한국전쟁 추모 공원이었다.

판초 우의를 입은 미군들을 형상화한 공원 옆에는 검정색 비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딸들을 기리며” 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며 울컥하는 감정이 나를 압도했다. 희생정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조국과 애국심 같이 머리만 알아듣던 단어들이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자국민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공원 앞에서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당연시하며 누리고 있었던 자유와 나의 조국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의 태생적 권리라고만 생각했던 자유는 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수호해온 숭고한 가치이자 유산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이후 나의 다음 결정이 바로 입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



시 나는 아직 중학생에 불과했고 그 순간에 군 복무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그때 나는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뿌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었고, 나는 ‘바나나’가 되기보단 당당한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어 세계라는 무대 앞에 서고 싶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오랜 미국 생활 끝에 대학교 3학년이 되자 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졸업을 앞둔 2015년 초에는 입대에 관한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시 나는 진학하고 싶었던 대학원에서도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고, 지난 10년 넘게 생활하던 터전을 떠나 군대라는 미지의 조직에 입대할 생각을 하니 마음처럼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미 입대시기를 놓쳤던 터라 이번 기회에 입대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중학교시절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이후 세상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나의 결심을 배반할 수는 없었다. 또한 나는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어떤 형식으로든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이용하여 우리 모두가 나눠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외면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미 예비군이 된 친구들에게도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무조건 군 생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손쉬운 시간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속담인 ‘죽지 않는 이상 강해진다(what doesn't kill you, only makes you stronger)’라는 말처럼 전역 후 이제는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본토에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 경험이 기업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작년 5월, 내 특기인 영어를 살려 어학병으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입대한지 1년째가 되는 지금, 내가 훈련소에 처음 입소하고 나서부터 전입하게 된 1철도대에 오게 되기까지 지금도 군대에 관해 내가 가장 높이 사는 부분 중 하나는 부대가 보여주는 병사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다. 솔직히 나는 입대 전, 말로만 듣던 군대 문화를 극단적으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의견은 늘 묵살될 것이고 철저한 계급 중심의 사회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집단일 것이라고 짐작하곤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훈련소에서부터 나는 군대가 놀라울 만큼 개개인을 위해 배려해주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오는 만큼 각자의 몸 상태나 사연이 다 다르다는 것을 조교나 간부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우는 해 줄 수 없지만, 최대한 규율 안에서 개개인이 군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육군훈련소에서는 매일 아침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친구들의 혈압측정을 해 주었고, 디스크나 고관절 같은 질병이 있는 병사들에게는 행군 시에 단독 군장을 허용하는 등 사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병력관리를 하고 있었다. 신병이 임무수행을 못한다고 무조건 욕박지르거나 얼차려로 위협하지도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훈련에 임하는 문화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철도대로 전입한 이후에도 간부님들은 나의 고충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언론이나 인터넷으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퍼지는 몇몇 부조리한 사건들이 군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가끔씩 발생하는 부조리나 부당한 처사를 겪고 있는 병사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인 헬프콜이나 감찰실 등이 항상 마련돼 있다는 것도 군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꿔게 해준 요소들이다.

더 나아가서, 내 군 생활을 얘기할 때 전우애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 사귀는 것이 거래처럼 여겨진 적이 많았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기보다 그의 의도를 의심했었고, 학교나 취업전선에서 무한 경쟁을 하며 남을 눌러야만 내가 유리해지던 관계들과는 달리 군대에서는 나라를 위해 만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서 느끼는 말로는 형용하기 힘든 끈끈함이 전역 후에도 내게 큰 힘을 주리라 믿고 있다. 혹한기 훈련 때 서로 추운 것을 참아가며 몇 개 안되는 핫팩을 함께 나눠쓰던 기억과 당직 근무 후 고생했다며 선임병이 컵라면이라도 하나 챙겨줄 때의 고마움은 사회에서 느꼈던 그 어떤 정보다 진실 되게 느껴졌다. 서로 고마움이 쌓이며 의지하게 되는 과정은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봐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군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가장 귀중한 가치는 바로 관점의 중요성이다. 간식 같은 건 별로 입에 대지 않던 내가 훈련소 시절 초코파이 하나를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었다. 행복이란 주관적인 것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은 입대 전에도 수차례 들었던 얘기지만 한 번도 가슴으로 공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지금 불안정하고 불행한데 긍정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인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군대에 있는 내 처지를 비판하며 불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에 근접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내가 군대에 와보니 사회에서 군 생활이 낭비이고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군 생활을 낭비했던 것이다. 군대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최소한 우리 부대에서는 내가 공부한다는데 눈치를 주거나 허락하지 않은 간부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관점의 차이인 것이다. 군 생활을 족쇄라 생각하는 이들에겐 낭비하는 21개월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분

명 멀리 내다보고 내 꿈을 향해 전진하는 도약의 21개월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잠재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임을 군대에 와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군 복무가 국방의 의무라는 표현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본분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나 싶다. 상병이 된 지금 나는 의무적인 시각에서 내 군 생활을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나는 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임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맞게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뿐이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끼기에 내가 한 선택에 절대 후회는 없다. 아직도 같은 민족끼리 38선을 앞에 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당신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인가?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했지만 '바나나'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내 자신에게 진심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군대가 아니었다면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할 귀한 배움에 오랫동안 감사할 것이다.





## 오늘 내가 사는 게 자랑스러운 이유

17사단 방공중대 상병 백동원

“화스트 페이스, 화스트 페이스 발령. 전 병력들은...”

1년 365일 내내 섭씨 30도를 웃도는 기온과 무덥고 습기 가득한 날씨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아버지를 따라 그런 곳에서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7년을 보냈고, 눈이 내리는 겨울에 관한 기억 자체가 가물가물해졌다. 더불어 그 중·고등학교는 미국 학교였기에 내 가치관과 문화는 한국의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다른 형태로 형성되었다. 삶의 적응도와 문화, 인생에서 사람을 결정짓는 가장 큰 두 요소가 한국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내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군대에서의 혹한기 훈련이 아닐까 싶다.

“동원아, 우선 비밀문서부터 챙겨라.” 모두가 완전군장을 결속하고 위장크림을 바르기 급급했던 시간에 정보병으로서의 내 임무는 전시 비밀문서부터 전시 비밀문서함에 넣어 부대의 보안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사실 남들보다 늦게 위장하고 완전군장을 결속한다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죽음에 좀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들이 우선적으로 부대를 벗어나 작전지역에서 텐트를 칠 때, 나는 비밀문서와 함께 늦은 출발을 하게 된다. 그 사이에 적군의 포탄이 날아온다면, 전쟁의 시작과 함께 아무 것도 못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

만 보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내 죽음과 맞바꿀 가치가 있다. 나 하나로 인해 100명이 넘는 방공중대원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 보안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했다. 사실 입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책임의식을 갖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 미국인 선생님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문학에서는 ‘나’가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세상이 둘러싸고 있다고 가르친다. 내가 없다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나’는 모든 것의 선결조건이 된다. 그런 문화권에서 교육받았던 내가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보안을 확보하고 난 후 완전군장과 위장을 마친 나는, 뒤늦게 작전진지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작전진지에 다다르면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은 복잡해졌다. 이윽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추위가 엄습했다. 추위에 대비하여 겨울 내의 2벌에 방상 내피 2벌, 전투복과 야전상의까지 껴입었고, 귀에는 귀도리와 목에는 목토시, 손에는 얇은 장갑과 두꺼운 장갑으로 완전 무장을 했지만, 바람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작전진지까지 가는 1시간이 그렇게도 길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혹한기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진학했다. 추위에 단련되었을 리 없던 나를 보고 대학교 선배들은 “너는 군대 가면 추위 때문에 고생 엄청 하겠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군대에 꼭 가고 싶다는 거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간단하게 답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받은 혜택이 있으니 당연히 내 의무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나는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 같은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비로소 내 나라에 속했다는 안정감을 찾고 싶은 것이라고.

작전진지로 향하는 1시간 내내 나는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이를 딱딱거리며 손으로 양팔을 문질러 열이 나도록 노력해 봤지만, 추위가 너무 강했다. 이러다가는 작전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얼어버리거나 앓을까 할 정도로 춥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묵묵히 버텨보았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이다. 작전진지에 도착했을 때, 더 매서운 바닷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추위에 떨면서, 묵묵히 D형 텐트와 지휘통제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방공중대원들은 경계작전 명령서에 따라 3곳에서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추운 바람에 발가락이 얼어버릴 것만 같았고,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펑펑 내려와 나를 덮기까지 했다. 경계를 서는 2시간이 지옥 같았다. 경계가 끝난 후 가장 행복해야 할 취침시간마저 30분에 한 번씩 깨면서 추위에 벌벌 떨었고, 정말로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상했던 점은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들 동안, 나는 정신적으로는 크게 힘들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다. 오히려 이런 힘든 과정을 넘어섬으로써 내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뿌듯함마저 느꼈다.

가끔 사람들은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정된 국토 내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살 수 있는 권리,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고 보호받을 권리 등 여러 권리들은 말 그대로 살아가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더 쉽게 착각하곤 한다. 아! 이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내 권리가구나. 이 권리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구나.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라가 없어지면 모든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없음은 당연하고, 나라가 멸절히 존재하더라도 그 혜택 중 한 가지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나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대한민국은 멸절히 존재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 쉽게 소속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은 자원 병역이행이었다. 군대에 자원입대하여 내 의무를 다함으로써 내 권리를 되찾는 것. 그랬기에 내 주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든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혹한기 훈련은 끝이 날 때까지도 섭씨 영하 18.5℃를 유지하며 복귀 행군까지 나를 괴롭혔다. 혹한기 훈련이 끝난 지금도 나는 추위에 익숙해지진 않은 것 같다. 아마 어릴 때부터 몸이 더위에 적응해버린 탓에 영원히 추위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쩌면 나는 혹한기 훈련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훈련에 훈련이 거듭될수록 특히나 취약한 훈련을 극복할수록 나는 더 큰 것을 얻게 되었다.

휴가를 나갈 때마다 내 친구들은 더 이상 나를 외국에서 살다온 애라고 보지 않았다. 대신 나를 휴가 나온 대한민국 군인으로 봐 준다. 이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소속될 권리’를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게 있어 군 입대는 투자였고, 그랬기에 내 청춘의 1년 9개월을 버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생각했고, 그 외에도 연등 시간이나 짬짬이 남는 시간에 독서와 공부를 병행하여 알찬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내 군 생활은 단 한 시간도 느리게 흘러간 적이 없었다.

사회에서는 군대 두 번 가는 꿈을 꾸면 식은땀을 흘린다는 말이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돌아간다면 군대를 두 번 가야 해서 싫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 다시 대한민국 육군을 골라 자원 병역이행을 하러 올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게 자랑스럽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해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한국인이 되어가고, 한국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국외이주자로서 영어가 한국어만큼 능숙한 것보다 대한민국 육군 소속의 군인임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킴에 있어 자존감과 명예를 지닐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생활 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을 밝힙니다.



# 힘내라 아홉수!

— 더욱 찬란할 내 인생 제3막을 위하여 —

30기계화보병사단 315포병대대 상병 조용경

“아홉수 힘내라!”

4월의 유격훈련, 산악 외줄타기를 하는 도중 별안간 들린 응원소리에 하마터면 줄에서 떨어질 뻔했다. 스물아홉 살, 20대의 마지막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는 나를 우리부대 전우들은 ‘아홉수’라며 놀린다. 발끈한 나는 젓 먹던 힘까지 내어 외줄을 넘어 보지만 결국 목표지점을 몇 발짝 남기고 그만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통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분명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나이는 어쩔 수 없나보다. 1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돼버린 요 꼬맹이들은 매일같이 내 속을 썩이고 나와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이놈들의 응원 덕분인지 이번 유격훈련은 열외 한 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군대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부터가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내 인생 제1막은 잘 끝났다. 하지만 거침없어야 했을 내 20대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이름만 보고 선택한 법학이라는 학문에 도무지 정을 붙일 수가 없었다. 대학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공허감 역시 나를 괴롭혔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진지

하게 묻고 싶었지만 사법시험이 곧 폐지된다는 초조함이 가득했던 학교의 분위기는 내게 그런 질문을 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떠밀리듯 시작한 사법시험 공부는 수능 때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선발 인원은 해마다 200명씩 줄어드는데 공부를 해도 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수험 생활은 타성에 젖어 쳇바퀴처럼 굴러갔다. 언제부턴가 학원에 가서는 딴 생각을 하고, 독서실에 가는 대신 PC방을 가고, 천 원짜리 고시촌 커피를 먹으며 친구들과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 유명한 ‘신림동 고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20대 후반이었다. 슬슬 군대 문제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사실 군대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잘 크던 키가 갑자기 크지 않았고, 의아한 마음에 성장판 검사를 하던 도중 왼쪽 발목에서 종양을 발견했다. 성장통으로만 생각했던 만성 통증은 사실은 그 종양으로 인한 통증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2007년의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여차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자’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2012년 재징병검사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은 ‘되도록이면 현역으로 복무하자’는 것으로 바뀌었다. 첫 재징병검사에서 의사는 내 진단서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3급 판정을 주었다. 당황해서 항의하는 나에게 그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써가며 자신의 소견으로는 군복무에 무리가 없고 더 이야기할 게 없으니 불만이 있으면 항소절차를 밟으라고 하였다. 그 후 재검사를 통해 다시 4급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내 몸의 상태를 다시 생각해보고, 현역 복무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지고 보면 내 몸은 행군 등 몇 가지 제약을 빼놓으면 군 복무를 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술자리에서 고개를 뺏뺏이 세울 만한 자랑거리 한 개 정도 만들고 싶다는 어린 마음도 있었다. 그러면서 ‘진로를 확정지은 후에는 자원해서 입대하자’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패는 이어졌다. 2013년,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도전한 로스쿨 입시



에서조차 쓴잔을 들이키면서 패배감은 더욱 커  
져만 갔다. 2014년의 입시에서는 한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원하는 로스쿨에는 결국  
모두 떨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실패하고 좌절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졌다. 맥주를 마시면서 아버지가 문득 말씀  
하셨다. 군대나 가보지 않겠냐고. 막연히

생각했던 이전의 목표가 생각났다. 그래. 일단 군대를 가자.  
군대에 가서 지금의 실패를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해 보자.

다음날, 친구들은 난리가 났다. 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다. “니가 드디  
어 미쳤구나.” 안 그래도 7년째 대학도 졸업 못한 사람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시  
간적·정신적인 이익을 모두 제쳐두고 자원입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었다.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은 내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겪게 될 여러 시련들을 너무 쉽게 생  
각한다며 나를 나무랐다. 그런데 이런 만류를 들으니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이익을 계산하기  
에 앞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의 자랑거  
리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군  
복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작은 제약을 핑계로 회피하기 싫었다. 미래를  
핑계로 포기만 해왔던 내 20대, 한 번쯤은 실리를 계산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질러보고 싶었  
다. 그렇게 내가 사회복지를 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던 때에, 나는 네 번째 신체검사를 받았  
고, 3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었다. 그 후, 신기하게도 내 군 입대를 반대하던 친구들

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리던 친구들이 내 선택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미리 군 생활을 경험한 선배가 되어 입대 준비물부터 선임에게 잘 보이는 법, 들리지 않고 소위 ‘꿀 빠는 법’까지 온갖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자 셋이 술자리에 모이면 꼭 한다는 군대 얘기, 항상 흘러만 왔던 그 얘기들이 진지하게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5년 3월 3일 나는 입대했고, 450여일 짜 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자원입대를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최전방 포병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말로만 들어왔던 ‘군대 추위’와 싸워야 했고, 행정병이 되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편한 보직’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특히 ‘나이 많은 고학력자’라는 나의 위치는 군 생활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편견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값진 경험들 때문에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주저없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20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 여차하면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일주일 동안 포소에서 대기하면서 ‘나의 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대대전술훈련을 가서는 14일 동안 훈련장 텐트에서 있으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주먹밥만 먹으면서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집에서 출근하면서 사회복지무원으로 일했다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사회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많은 경험들을 2년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값진 소득은 2년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이었다. 군에 입대하고 나서 다양한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각자의 사연을 나누면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신병교육대에

서는 여섯 번이나 수능에 실패하고 일곱 번째 재도전을 준비하는 진균이를 만났다. 자대에 와서는 집안 사정으로 미국 유학이 좌절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회가 있었다. 서른한 살 윤중혁 병장님은 아직도 래퍼의 꿈을 버리지 않고 휴가 때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 들려준다. 이런 전우들에게 내 실패 경험과 공부 방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심으로 조언해 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나 역시 이들의 꿈과 노력을 보면서 꿈 없이 살아왔던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겪어 나가면서 대학시절 가지고 있던 나태함과 패배주의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니,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2년이라는 군 복무시간을 좀 더 활용하고 싶어졌다. 매주 토요일 동아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공부를 하고, 하루에 법학직성시험문제 한 지문씩 푸는 등 짬짬이 시간을 내어 로스쿨 입시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한지 1년이 지나갈 무렵 큰 선물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한 것이다.

나는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어제도 온 관물대를 뒤졌는데도 끝끝내 나오지 않았던 나라사랑카드가 알고 보니 내가 입은 활동복 주머니 안에 있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나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이 막상 내려놓고 나니 허무할 정도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 20대의 끄트머리, 거듭되는 실패에 질린 나는 모두 내려놓기 위해 군대에 왔다. 그리고 군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리 찾아도 오지 않던 것들이 나에게 오기 시작했다. 물론 연세대 로스쿨 합격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인생 제2막의 끝에서 선택한 자원입대라는 ‘자충수’는 힘차게 인생 제3막을 시작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어 돌아왔다.

스물아홉의 군인. 오늘도 생활관 동기들은 전역하고 30일 후면 서른이라면서 나를 놀린다. 이제 아주 내 전역일이 아니라 서른 살이 되는 날을 세어 주고 있다. 그래, 나는 올해 아홉수 군인이다. 하지만 내 아홉수는 삼재가 닦친다는 그 아홉수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화려한 인생의 제3막을 알리는, 다사다난했지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제2막의 피날레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군 자원입대’라는 한 번의 무모했던 결정 덕분이었다. 늦은 나이에 군대에 와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고, 덕분에 별의별 패배의식을 다 떨쳐낼 수 있었다. 그리고 연세대 로스쿨 합격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내친 김에 올해는 좀 더 큰 꿈을 꾸고자 한다. 올해 나의 목표는 서울대 로스쿨 합격이다. 어차피 전역까지 시간도 남았겠다 망설일 것은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안 될 것이 무엇이며, 안 되면 또 어떠랴. 이미 나에게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전우들이 함께 있는데 말이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힘내라 아홉수!”







## 자랑스러운 아들을 소개합니다

김정자(해병대 1사단 73세대 일병 이덕원의 모)

2014년 아들이 스무 살 되던 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통지서가 나왔다. 아들은 친구랑 같이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다. 당연히 군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들 친구는 현역 1급, 아들은 4급 보충역이 나왔단다. 아들 얼굴이 어두웠다. 왜 4급이 나왔냐고 물어봤다. 아들의 대답은 키가 1cm 작아서. 현역에 충족되는 159cm보다 1cm 작은 158cm라 현역이 안 된다고. 너무 비만이든지 몸에 문제 있으면 못가는 줄 알았지만 키가 작아 못 가는지 미처 몰랐다.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았다. 아들은 꼭 군에 가고 싶다고 한다. 마음이 착잡했다. 혹시 모르니 재검사를 다시 한 번 받아 보라고 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며칠 뒤 병무청에 갔다. 재검사는 6개월 뒤 할 수 있단다. 여름방학 때 다시 병무청에 갔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현역판정이 나기를. 결과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아들 얼굴은 굳어 있었다. 병무청 직원에게 사정을 했다. 아들은 군에 가고 싶어 한다고 1cm 작는데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대답은 안타깝지만 안 된다고 한다.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꼭 군에 가야 하냐고 물어 봤다. 아들은 꼭 가고 싶단다.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든 보내야겠다 싶어 인터넷을 뒤져 봤다.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세 교정 하는 곳이 있었다. 일단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 보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이미 다 성장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마지막 카드로 자세교정 하는 곳을 데리고 갔다. 상담사에게 사정을 얘기 하니깐 1cm는 키울 수 있다고 한다. 일단 3개월만 접수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했다. 바로 등록하고 다음날부터 운동하기로. 이제부터는 아들의 몫이다.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생활습관, 이 모든 게 갖춰져야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한다. 다른 부모들은 군에 안 보내려고 하는데 돈까지 쓰면서 보내려고 하냐고. 그런 말에 신경을 안 썼다. 오로지 1cm 키우려고 온갖 신경이 여기에 쏟렸다. 3개월의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검사 날짜가 다가왔다. 검사 결과는 0.7cm가 자랐다. 트레이닝에서 3개월만 더 운동하고 안전하게 1cm 키워서 검사 받는 게 어떻겠냐고 다시 3개월을 더 운동에 매진했다. 아들과 함께 다시 병무청에 방문했다. 아들은 신체검사 받으러 들어가고 난 밖에서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재검사 하냐고. 난 있는 그대로 얘기 했다. 그 엄마는 나에게 “아들 잘 키웠네요.” 했다. 자기 아들은 현역 3급이 나왔는데 군에 가기 싫다며 정신과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재검을 받으러 온 옆에 앉은 다른 아버지는 갈 수 있다면 대신 군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병무청에 오늘따라 사연이 많았다. 좀 있으니까 아들이 나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어 봤다. 어떻게 됐냐고. 아들은 처음에 안됐다고 했다. 이젠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좀 있으니 아들이 웃는 얼굴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이 났단다. 정말 기뻐다. 눈물이 나왔다. 남들은 안 갈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노력의 대가는 있었다. 저녁에 우리 가족 넷이 모여서 기쁨의 술자리를 가졌다. 마음 상할까봐 물어 보지 못한 말을 이젠 당당하게 물어 봤다. “넌 왜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 군을 기를 쓰면서 군이 가려고 하냐?” 아들의 대답은 명쾌했다. “내 몸은

건강한데 키가 작다고 군에 못 간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장하다 아들, 대견하다 아들. 늙은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했다. 이 소식을 할아버지와 친인척이 듣고 축하의 말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축하해 줬다. 아들은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1차, 2차 합격하고 마지막 관문 체력 테스트가 있다고 했다. 갔다오더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윗몸 일으키기 등 병무청에서 원하는 개수를 못 채웠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2015년 9월 21일 해병대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군 입대까지 한 달 여유가 있었다. 차근차근 군 준비물을 챙겼다. 시력이 안 좋아 예비 안경도 맞추고, 시장에 아들과 같이 가는데 한 엄마가 군복 입은 아들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아들이 군에 간다고 해서 그런지 남의 아들도 내 아들처럼 대견해 보였다. 드디어 포항 훈련소 가는 날, 아들 친구 둘이랑 같이 동행했다. 훈련소 근처 횡집에서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마침 그날이 MBC 진짜 사나이 촬영팀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부모님과 친구, 애인, 친인척들이 많이 와 계셨다. 멋있는 군인들의 퍼레이드를 보고 웃고 즐길 때 마이크에서 신병들 연병장으로 모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아빠, 엄마에게 인사하고 같이 간 친구들에게도 인사 나누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신병들이 다 모인 뒤 부모님께 큰절 올리고 아들들을 훈련소로 데리고 들어갔다.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난 살짝 눈시울만 붉혔다. 왜냐면 훈련소 데리고 간다고 다 입대 하는 게 아니란다. 다시 신체검사 받고 입대 시킨단다.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린다. 목요일쯤 귀가 조치시킬 사람은 집으로 보낸단다. 겨우 군에 갔다 싶었는데 혹시나 아들이 다시 집으로 온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텐데 며칠간 밤잠을 설쳤다. 2015년 9월 30일 목요일 오후, 해병대교육단에서 문자가 왔다. ‘귀하의 자제분은 신병 1202기로 정식 입소했다’고. 눈 녹듯이 내 마음도 녹았다. 전역하는 날까지 무사히 건강하길 바라면서. 아들은 6주 훈련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아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운 좋게 그 많은 신병들 중에 아들의

독사진이 몇 장 있었다. 바느질하는 모습, 군기가 바짝 들은 모습 등. 편지도 몇 통 왔다. 무뚝뚝한 아들의 철든 안부 글들. ‘군이 아들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었다. 편지 내용 중에 군에서 먹는 군데리아 햄버그 빵이 제일 맛있었다.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기분을 모른다고. 2015년 10월 30일, 수료식이 다가왔다. 외삼촌과 아들 친구와 함께 참석했다. 행사가 끝나고 연병장에 아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갔다. 아들은 키가 작은 관계로 제일 끝에 서 있었다. 부동자 세로 부모 앞에서 신고식을 했다. 왈각 눈물이 나왔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져 있고 한층 의젓하고 멋있었다. 아들을 꼭 껴안고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었다. 하루 뒤 아들은 1사단 73대대 기본 보병으로 자대배치 받았다. 배치 후 몸에 긴장이 풀렸는지 몸살과 폐렴이 와서 입원했다. 요즘 부대는 행정관님이 부모님께 연락을 주시더라. 아들 면회는 가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폭 자고 잘 먹고 하면 낫는다고 했다. 일주일 입원하고 생활관에 갔다고 연락이 왔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면 아들의 목소리가 정말 밝다. 훈련 했던 얘기, 선임들 전역한 얘기, 군대 다녀온 남자들 흔히 하는 축구 이야기. 엄마인 내가 들을 땐 군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2016년 5월 14일, 부대 개방 하는 날.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렀다. 외삼촌, 외숙모, 우리 세 식구랑 포항 부대에 갔다. 강당에 자리를 잡았다. 병사들 장기 자랑을 했다.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도 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 음악이 흐르면서 병사들이 나왔는데 정중앙에 아들이 서 있는 게 아닌가. 며칠 전 전화 왔을 때 아들에게 물어 봤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 기본자세에 송환 깨기 정말 멋있었다. 같이 간 외숙모는 우스갯소리로 태권도 배운 보람 있겠다며, 돈 주고 배운 걸 여기서 보여줬으니 아깝지 않겠다고 말이다. 더욱 놀란 건 우리 아들이 상병이랑 사회를 보는 게 아닌가. 싸이의 나팔바지 음악에 맞춰 코믹 댄스를 춘다. 부모님과 병사들이 떠나가도록 웃었다. 나도 정말 마음껏 웃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기특했다. 아들의 새로운 면을 봤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용기가 자랑스럽다. 행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생활관으로 갔다. 생활관 앞에 무기가 진열되어 있었다. 부모님들은 이것저것 만져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 보기도 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 병사들이 먹는 식당에 갔다. 아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감개무량 했다. 점심을 맛나게 먹고 아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침대와 군복들이 해병대의 자랑. 오와 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같이 생활하는 선임들과 인사도 나누고, 아들이 하나하나 안내를 해줬다. 말로 듣던 곳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니 신기했다. 만약에 아들이 군에 안 갔다면 이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을 텐데. 아들에게 감사했다. 군대 보내길 잘했다는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아들도 그걸 알기에 군에 가려고 했는지 모른다. 일 년 남은 군 생활 아무쪼록 전역할 그날까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엄만 기도할게.

사랑한다 아들.





## 삶이 바뀌는 계기

12보병사단 51연대 예비역 박현우

저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이유를 대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가난해서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일 것도 같고,

집을 나간 어머니 때문일 것도 같고.

제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도 까먹을 정도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가면서 폭력적인 성향은 줄었으나,

술과 담배에 더욱 의존하면서 삶을 더욱 망쳤고,

어렸을 때 헤어진 어머니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독했으며, 고아나 다름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그저 게임을 하며,

또 라면으로 하루 세끼를 먹으며 바퀴벌레처럼 생존할 뿐이었습니다.

삶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동기부여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성의 돌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픈 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70점 만점의 멘사 아이큐 테스트에서 124점이 나왔을 정도로

기본적인 지능은 문제가 없어서 중·고등 검정고시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제가 학력변동으로 군 입대 자격을 얻고

그해 겨울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에는 멋있는 선임이 되어 후임들을 리드해주는 모습을 꿈꾸었으나,

군 생활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라면만 먹던 저는 당시 키와 체중이 184cm 54kg으로

현역 3급이었고, 강원도 최전방에서 산을 타고 훈련을 했는지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필 겨울이라 추위도 정말 버거웠습니다.

훈련 막바지에는 폐렴에 걸려 12사단 의무대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1기수를 유급해 또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병을 두 번 한 군인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훈련소 시절을 생각하면 울컥해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군 입대 전 8년 동안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의 못해 보았기 때문에

전 말을 굉장히 버벅거렸고 발음 또한 부정확했습니다.  
 김정고시도 독학으로 했기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무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훈련소 동기들에게 따돌림 비슷한 것도 당하고,  
 자대에 가서는 관심사병이 되어 괴롭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왔지?’  
 다른 사람들은 자해를 하거나, 나라를 떠나면서까지 기피하는 군대를  
 내가 왜 제 발로 왔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괴로운 이곳에.  
 국가에 헌신해 보려는 마음으로 자원입대 했지만,  
 국가에서 제게 주는 보상은 너무 빈약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가더군요.  
 다시 떠올려도 지옥 같은 이등병이 끝나고 일병이 되자  
 말도 덜 버벅거리게 되고, 임무에도 그럭저럭 익숙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윤 일병, 임 병장 사건처럼 엇나가지 않고  
 잘 적응해서 자랑스럽게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대에서 독서왕으로 뽑혀 포상휴가를 받기도 하고,  
 위문공연 맨 앞자리에 앉아 신나게 놀기도 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에 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며 했던 100km 행군을 완주한 날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9월 28일이요.



GOP에서의 나날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날들은 저의 자부심이 되었고,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강원도 인제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추운 곳에서도 안 죽는 신기함을 깨달았고,  
키는 1cm 더 자라고 15kg가 찌서 185cm 69kg,  
정상체중으로 전역하는 건강도 얻었습니다.  
입영 전에는 게임에 중독된 생활을 했던 저는  
현재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딘가에 의존하는 걸 그만두고 자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인 시절 제 자신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전역 후엔 폭력적인 아버지에게도 맞서 싸우며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을 확실히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등병 생활은 지옥 같았지만,  
그때를 빼놓고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나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했지?’ 싶은 훈련과  
GOP를 타서 최전방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 빛나는 일출.  
그때의 기억들과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약 초등학교 졸업인 학력으로 남아서 군 면제가 되었다면,  
지금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달랐겠지요.  
게임에서 못 벗어나 평생 그렇게 집 안에 박혀 살았을 겁니다.

군대는 물론 힘들었지만,  
 알에서 깨어나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역하던 날, 후임들이 제게 해주었던 경례는  
 지금도 제 자부심입니다.  
 군대를 다시 가라면 절대 못 가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볼 만한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입대 전의 장병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 주어진 가혹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련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의 안배라는 것ですよ  
 고된 훈련은 당신의 몸을 강철과 같이 튼튼하게 바꿀 것이고  
 인내의 시간은 살아왔던 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헤쳐 나갈 천금같이 값진 의미 있는 시간들에  
 미리 박수를 보냅니다.





##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2항공여단 602대대 일병 박재업

외가는 일명 ‘해병대 집안’이다. 군인이셨던 큰외삼촌은 해병대 1사단에서 재작년 원사로 전역하셨다. “남자라면 해병대를 나와야지”라시던 큰외삼촌의 일침 덕에 육 남매인 외가에서 내 위로 네 명이 해병대를 나왔다. 물론 다음 타자는 나였고, 막내 외삼촌의 아들이 아직 미취학 아동임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내가 마지막이었다. 그 때문에 내 군 생활은 입대 10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도 세뇌를 많이 당해서 지금도 내 오래전 친구 중에는 내가 해병대에 간 줄 아는 사람도 더러 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5월, 입영 신체검사를 위해 친구들과 셋이서 부산지방병무청으로 갔다. 처음 보는 수십 명의 사내들 사이에 섞여 여비로 주어질 12,000원으로 오후에 고기를 먹을 생각에 모두 신이 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신장·체중 측정에서 녹아버렸다. 0.3cm가 부족했던 것이다. 평소 작은 키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런 결과까지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4급. 0.5m로 태어나 20년 동안 1.1m도 크지 못한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신체검사 결과였다. 결과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멍해진 나는 서둘러 고향 부모님께 전화해 결과를 말씀드렸다. 처음엔 좀 놀라 하셨지만, 이내 빠르게 안정을 찾으셨다. 오히려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혼자 방에 누워 생각에 잠기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병무청에 화가 났다.

‘겨우 0.3cm인데, 조금 봐주지.’

다음 날 부산병무청에 전화해 30분 동안 따지고 들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입대를 원하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겨우 0.3cm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실랑이 끝에 키가 조금 더 자라면 재검사를 받으라는 더욱더 충격적인 답을 받았다.

그날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했다. 1학년을 끝낸 후 입대하려던 계획은 무너지고, 고향에 갈 때마다 부모님과 ‘입대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장은 반반이었지만, 누나의 개입으로 입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었다. 그렇게 입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끽대고 있을 무렵, 군에서 큰 사건 두 개가 터졌다.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진 것이다. 가족들의 의견은 더욱 거세졌고, 반 포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다.

가을이 되고, 11월 중순쯤 어느 날, 그날따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름 돋는 축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14년도 입영 신체검사 종료 5일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망미동행 51번 버스를 탔다. 1년 반 만에 다시 들어선 병무청, 하지만 또다시 퇴짜였다. 소재지가 밀양인 내가 부산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면 1주일 전에 신청을 한 후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숙사로 돌아와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주말 내내 고민을 한 끝에, 월요일 모든 수업을 땡땡이치고 소재지인 경남지방병무청으로 향했다. 처음 가보는 도시의 병무청을 향해, 받아줄지 아닐지 확신도 없이, 결석을 감수하고, 꿀꿀한 날씨에 비를 맞아가며, 심지어 키가 더 컸을지 안 컸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버스에 올랐다.

처음 망미동으로 갈 때와는 사뭇 달랐다. 심장이 쿵쿵대 미칠 뻔했다. 신장·체중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섰다. 0.2cm가 부족했다. 1년 반 동안 0.1cm 큰 것이다. 창피했지만, 검사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팔굽혀펴기 20개만 하면 안 될까요?”

거짓말 않고, 그 자리에서 8번의 재측정을 하였고, 팔굽혀펴기를 200개 정도 했다. 예전 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 척추가 펴져서 일시적으로 몇cm 더 크다고 것을 본 적이 있다. 팔이 아픈지도 모를 정도로 간절했다. 3급. 눈물이 핑 돌았다. 검사관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진심이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흐린 우울한 날씨에도 부산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디선가 밀려오는 뿌듯함에 흥분이 됐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고향 밀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저 군대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내 고집에 손을 들어 주셨다. 누나는 여전히 반대였지만, 해병대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조용해졌다. 그렇게 4달 후 3월, 자원병역이행자라는 이유로 가산점 혜택을 받아 육군 제53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운전병으로 무난히 입대할 수 있었다.

군인으로 보내는 21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한참을 고민한 것에 비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공부, 운동, 책 읽기. 지나가는 군인에게 군 생활 중 목표를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이 셋 중 하나를 꼭 이야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어디까지 닿느냐였다. 셋 중 하나만 확실히 해도 성공한 군 생활이라 말했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내가 군대를 선택했고, 내가 선택한 21개월은 남들의 21개월보다 훨씬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때문에 난 셋 다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았다. 점심시간 한 시간, 저녁 시간 두 시간,

연등 시간 두 시간, 주말평균 개인정비 시간 열 시간, 심지어 일과 중 마지막 한 시간은 체력 단련 시간이 보장된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매일 주어지는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해 공부하다가 쉬는 동안 책을 읽는다. 주말에는 한 시간 오침을 하고, 한 시간 운동하고, 여섯 시간 공부하더라도 런닝맨과 무한도전 볼 시간이 각각 남는다. 사이버 지식방 이용시간과 부모님께 전화할 시간도 충분하다.

본청 1층에는 병영도서관이 있다. 각종 베스트셀러가 진중문고 형식으로 출간돼 있고, 오래된 소설과 선임들이 기증하고 전역한 전공서적들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잘 읽지 않았기에,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가 가장 힘들었다. 열심히 읽다 보면 앞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집중하다 보면 정신이 흐릿해져 지금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우선 그런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손에 잡은 책은 소설 「메이즈 러너」였다. 친한 후배가 볼만하다고 추천해준 책이다. 재미있다는 말에 읽은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세 권으로 이뤄진 시리즈에 흥미를 느끼면 오기 때문이라도 세 권 다 읽으려 애쓸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엔 정말 읽기 힘들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라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지루하기만 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조금이라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다시 앞장을 넘겨 읽기 시작했다. 덕분에 1권을 꼬박 일주일 만에 읽어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흥미가 생기면서 2권은 사흘 만에, 마지막 3권은 이틀 만에 읽어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난 그렇게 세 권 만에 반을 해냈고, 지금까지 서른 권이 넘는 책을 읽어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지 몰라도, 내게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읽은 책보다 많은 양의 책이다. 지금도 수시로 병영도서관에 들르고 있고, 아직 읽지 못한 수백 권의 책을 보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책이 재밌어졌다.

내 대학 전공은 기계공학이다. 턱걸이로 들어간 학교에서 전과를 하게 되면서 학과공부를 따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공부가 바로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공부이다. 2년간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고, 앞으로 배워 나갈 내용도 있다. 재수강에 아직 듣지 못한 전공 수업을 위해 미리 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4만 원이 넘어가는 자격증 서적이 부담돼 두 달 만에 누나에게 연락해 안부를 물어본 끝에 얻어냈다. 나 스스로 부담감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돈이 문제였다. 책을 폼했지만 역시 머리는 하얀 상태였다. 한번 배운 내용이라 쉽게 들어올 것이란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리고, 공식을 외워도 좀처럼 책장이 넘어가질 않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없었다. 경험상 공부는 동기부여도 필요 없고 책 읽기처럼 계속 다시 보는 것도 소용없었다. 그냥 밀어 넣었다. 모르는 내용은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고, 휴가 나가서 필요한 전공서적을 더 가지고 온 뒤 그저 무식하게 공부했다. 지금 3분의 2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 시험 날짜와 컷트라인 점수, 앞으로의 군 생활을 고려했을 때 실기 시험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안심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한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의지이다. 처음엔 그냥 다이어트 정도로만 운동 했지만, 최근엔 헬스 트레이너였던 동기 도움을 받아 근력운동을 진행 중이다. 쑥쑥 들어가는 배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복근, 굽어지는 팔뚝을 보며 전역 후 부산에서 보낼 여름을 생각하니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최근 마스크를 통해 병역기피자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들은 군대생활을 하는 21개월 동안 자신이 잃는 것만을 생각한다. 젊음, 시간, 청춘. 잃는다고만 생각한다. 그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모두 내게 바보라 손가락질했다. 남들은 끌려가는

군대를 왜 제 발로 들어가느냐고. 처음 신체등급을 받았을 때, 그건 누군가 내게 준 기회라 말했다. 그들 말이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들 말대로 다신 오지 않을 기회였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기회는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아닌, 입대에 대한 선택을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 있어 난 그 기회를 잡은 것이다. 다들 지나가기 꺼리는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그 길을 나는 냅다 달려들었다. 그때의 선택은 앞으로의 내 모든 인생을 바꿀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뀔지 부정적으로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난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난 지금 정말 행복하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명예로울 수 있기에 행복하고, 아버지께 더욱 남자다운 아들이 될 수 있어 행복하고, 훗날 태어날 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일 수 있어 행복하고, 이번 휴가 때 어머니께 달팽이 크림을 사 다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 군인이 되지 않았다면 내 동기 대용이와 영욱이 같은 소중한 인연도 없었을 것이고, 딸기몽쉐의 깊은 맛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인가 얻는 것은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그리고 그 잃어가는 과정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입대하면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가 잃었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군대를 핑계 삼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잃어가는 것이다. 군 생활 동안 무엇인가 잃어간다는 생각을 한 후 더욱더 발버둥 쳤다. 그것이 잃지 않기 위함인지, 잃은 만큼 더 얻기 위함인지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모두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전병치위 · 박희범동 병사 장려사  
유는은



## 내가 이곳에 온 이유

39사단 118연대 일병 조병진

저에게는 특별한 입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 밟은 땅은 이곳,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는 24년 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한국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실력을 인정받아 건설 회사 요리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이직하셨습니다. 조건은 해외지사근무, 좋은 기회였고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방글라데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오셔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여 친형을 출산하시고 그때 당시 해외 요식업 바람이 불어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식당을 개업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으셔서 저를 임신 7개월 만에 출산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결국 제가 세 살이 되던 해에 쇼크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큰 슬픔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로 어머니의 시신을 운반하여 아버지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 산소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의

충격이 컸는지 아직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머니를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많이 아프고 어머니가 그리웁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형과 저는 한창 커갈 나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의 공항에서 일하는 새어머니를 만나고 제가 다섯 살 되던 해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새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병진아, 엄마야! 병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옆에 있어 줄게, 사랑한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겨 너무 행복했고 새어머니를 친모라 여기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시간 날 때마다 인도네시아어를 먼저 공부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형은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공부를 잘하여 한국에 외국인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노력하여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 국방부에서 통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며 한글을 배우고 새어머니를 따라 문화생활도 하며 대한민국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어머니는 “병진아, 아버지랑 형과 잘 지내고 행복해.”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이 맞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저와 형을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맡기시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신세를 지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던 도중 아버지가 오셨으며, 형은 독립하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요식업을 그만 두시고 인도네시아 왕족에게 공급되는 화장품 공장에 공장장으로 자리를 잡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제가 열아홉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병진아, 한국에 가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어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때 행복한 나날들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였고, 전라북도 군산에 아버지의 지인 집에서 신세를 지며 일을 도와드리고 한국어 공부와 영어 공부 등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병무청에서 온 신체검사통지서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군 입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인터넷을 통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인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이 저의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병무청과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는 군복을 입은 장병들, 경계와 훈련을 하고 있는 들판까지 만약 ‘내가 저렇게 군인이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일정을 계획하고 광주에 있는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신체검사를 하고 있고 그들의 표정은形形色색의 네온사인 같았습니다. 순서에 맞게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학력이 중학교 중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된다면 고창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서 출퇴근 하여야 하는데 큰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제가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왕 가려면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경계군무를 서고 있는 병사의 모습 또한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을 한다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바보가 된다.”, “군에서 복무하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낫다.” 등등 부정적인 말이 많았고 그러한 말

들이 저에게 많은 고민을 낳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운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생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비록 서울에서의 짧은 생활과 전라북도에서의 생활이 고작이지만 사계절 푸른 날씨와 좋은 생활여건,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곳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없지만 제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신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역으로 입대를 결심하였고, 현역 입대에 필요한 자격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우선 학력미달로 인해 보충역 판정이 났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오전에는 아버지 지인분의 일을 도와드렸으며, 오후에는 검정고시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저에게 쉬운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학교를 다니지도, 어느 누구에게서 배우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면 다시보고 알아도 반복학습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묘 또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정고시는 어려웠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덕에 합격했습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니 뜻깊었고, 현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잘 생각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외국에 오래 살았으면 안 와도 되는데 왜 굳이 군대에 들어왔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저에게는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에 그저 웃으며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입대하였지만, 막상 입대하고 나니 사회에서 말하는 것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간부님들과 동기들, 선후배 전우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도 없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생활관과 보급품으로 겨울인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전우애로 배고픔도,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병입니다. 앞으로 군 생활이 많이 남았습니다. 몇몇 전우들은 빨리 이 시간이 가기를 원하고 힘들다고 투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조언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간부와 선배 전우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을 오가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입대하면서 많은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환경들과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고,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전우들과 함께 이겨내어 행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전역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의 묘를 지킬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심한 고민에 빠졌었지만 몇몇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즐겁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과 효를 다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 21개월간의 청춘고백

31보병사단 96연대 예비역 김의혁

### VER 1 프롤로그

첫 훈련에서 시작되는 훈련에 대한 두려움, 첫 사격에서는 실탄 사격에 대한 두려움, 첫 행군에서 낙오(落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첫 휴가의 설렘과 두려움. 군대에서의 첫 경험은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 군대였다. 훈련병 시절부터 전역할 때까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입대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글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 VER 2 되감기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내 생애 첫 통지서를 받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의 첫 신체검사는 현역 판정이 아닌 재신체검사 대상이었다. 이유는 우울증. 그 뒤로 두 번의 신체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이 나왔다. 그렇게 나는 결과에 대해 체념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연평해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이것이 나의 입대 동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싶었다. 그렇게 하여 나의 입대 도전기는 시작되었다. 군대를 알아야 했기에 군대에 관한 TV프로그램을 보았다. 특히 입대하기 한 달 전에 운이 좋았는지 신병교육대의 일상을 제작한 ‘푸른거탑 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세상과 괴리되어 숨기만 좋아했던 내 자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노력하기를 3년. 세월 속에 시간은 흘러갔고 마침내 2013년에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었다.

### VER 3 훈련병&소대장님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나의 입대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군의 날이었다. 내가 입영한 부대는 31사단 신병교육대이다. 신병교육대에서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소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힘들게 얻은 현역의 기회였고, 두 번의 신체검사와 세 번의 해군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퇴소를 당하기 싫었다. 퇴소권유를 거절하고 훈련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뒤로 소대장님은 나를 믿어 주셨고, 각종 훈련을 받고 무사히 수료식까지 마칠 수 있었다. 아마 그때 내가 퇴소를 하였더라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해주시고 나를 믿어주신 1중대 3소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병교육대의 시작은 특별한 임무로 시작되었다. 바로 배식조라는 임무였다. 동기들 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중대장님께서 배식조 인원들에게 PX포상을 주셨다. 그것도 두 번이나. 신병교육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식조 임무로 PX포상을 받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 VER 4 이등병&진지 공사에서 본 일의 관점

군대는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곳은 아니다. 군대에서의 일은 다른 제2의 일로 번져 신나는 일이 될 수 있다. 나의 이등병 시절이 그러했다. 내가 복무했던 부대는 해안대대였다. 그 해안대대에서 시작된 군 생활은 진지 공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소대의 선임들과 같은 소대 선임 및 동기, 그리고 진지 공사의 지휘자 행정보급관님과 함께 투입하여 각종 진지를 만들었다. 작업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해야 할 일ಿಗೆ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업했다. 그래서인지 작업이 힘들지는 않았다. 진지 공사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해주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선임들의 군 생활 후일담으로 귀가 즐거웠고 작업 중 점심시간에 먹는 라면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서 입과 배가 만족했다. 또 진지 공사 중 진지 하나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 눈이 만족했고 주변의 바다냄새가 좋아 오감을 만족시켰다. 진지 공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축복이자 추억이었다. 그 해 초겨울은 매우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였다.

#### VER 5 일병&작전명 세월호 수색

새해가 밝아오면서 일병으로 진급하였다. 정확히 2014년 1월 1일 내 일병 진급일이기도하다. 새해에도 무사히 군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2014년 국가에 비극이 있었다. 어리석은 선장의 판단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긴 바로 세월호 참사사건이었다. 세월호 사건과 나의 군 생활이 연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세월호 수색에 내가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슴



아픈 사건 속에 해안선 수색정찰이라는 작전명으로 해안선에서 무엇이랄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부대에서 조를 편성해 해안선을 수색하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유가족의 심정처럼 옷가지라도 찾아야 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부대원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내가 참여했던 세월호 수색은 어려웠던 대인관계를 배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수색을 하다 보니 선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의 터가 생겼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국가와 국민이 힘든 시기에 내가 타인과 국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기회는 군대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 VER 6 상병&유격훈련에서 피어난 전우애

“말년에 유격이라니!” 한때 케이블 TV프로그램에서 유행한 대사이다. 나의 군 생활에 있어 똑같은 훈련이 두 번 있었는데, 이는 바로 공포의 유격훈련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육군이라면 한 번쯤은 받아봤을 훈련의 꽃, 유격훈련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훈련이었고, 또 두 번이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다. 유격훈련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끈기다. 훈련 도중 내가 포기를 하거나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힘들게 한다. 유격훈련 중 가장 힘든 산악구보에서 밀어주고 당겨주었던 선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감사했다. 그 선임들도 힘들었을텐데 주변을 챙기고 ‘할 수 있다’며 믿어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전우애라고 믿는다. 유격훈련이 끝나고 실시한 40km 야간행군은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행군이었다. 비록 중간에 군장을 내려놓았지만 완주에 성공은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훈련이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에 매우 감사하였다. 그 날 행군에 성공한 쾌감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고, 전우애라는 보물을 얻었다. 그리고 군대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한 곳이었다.

## VER 7 병장&예비군 조교

군 생활을 흔히 경계근무라 비유를 한다. 누군가는 군 복무를 마치면 어떤 누군가는 그 군 복무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병장 때 예비군 조교 임무를 하였다. 조교를 하다가 예비군들을 보면 최전방에서 근무한 분들도 있고, 후방에서 근무한 분들도 있었다. 그 분들도 군 복무의 경계를 마쳤다. 나 역시 경계를 마쳤고, 누군가는 군 복무로 하여금 국가를 지킬 것이다. 예비군들이 국가를 지켜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세상의 진리이고 군 복무에 대한 대가이다. 이 진리와 대가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에 평화의 날이 지속될 것이다.

## VER 8 에필로그&31사단 96연대 1대대

신병교육대에서 나를 믿어주신 소대장님에 대한 감사, 진지 공사에서 본 일의 관점, 유격 훈련에서 피어난 전우애는 마치 책 한 페이지가 모여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것처럼 나는 31사단 96연대 1대대에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며 전역하였다.

전역하는 날은 기분이 들뜨거나 신나지는 않았다.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고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되고 싶어 현역을 희망하였지만, 해군이 아닌 해안대대에서 군 복무 하였다.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경험은 내 나이가 황혼에 저물 무렵 후회되지 않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들에게 무한 감사를 보낸다.





## 결전

20기계화보병사단 공병대대 상병 이대발

결전! 20사단 공병대대 1중대에서 현역 근무 중인 일병 이대발이라고 한다. 2015년도 1월에 처음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왼쪽 발목 부분에 연골이 떨어지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징병전담의사는 수술범위에 따라서 급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하셨다. 건강한 군 생활이 우선이므로 부모님과 의논하여 병원 담당 의사를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재신체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수술 부위가 중요한 부위여서 병무청 전담의사는 4급 판정대상이라고 하였다. 어떻게든 현역 입대를 원하였기에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5월말 질병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병무청을 찾았다. 재신체검사를 맡은 전담의사는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2급 현역 판정을 내려주어 거의 6개월간의 긴 신체검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 낸 듯 뿌듯한 마음으로 내친 김에 불도저처럼 내 적성에 맞는 특기병 지원 방법을 찾아보았다. 아무래도 수술한 게 마음에 걸려서 많이 뛰어다니는 일반 소총수보다는 특기병으로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만지고 정비하는 일에 관심을 많았던 나는 장갑차 정비병을 지원하였다. 1차 서류전형 합

격과 2차 시험인 면접을 무난히 통과하고 2015년 8월, 드디어 입대를 하게 되었다. 입대도 어렵다는 시기에 이처럼 쉽게 입대하게 된 데에는 질병치유자에게 주는 모집 가산점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아 더욱 좋았다.

입대 날, 처음으로 수많은 짝꿍이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을 보았는데, 그 신기한 풍경 속에 나도 끼어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앞날이 기대되었다.

첫째 날 이리저리 치이면서 훈련병 기간 동안의 소속을 배정받고서는 3D 기계로 체형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대로 피복을 보급을 받았다. 두 번째 날에는 입영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진행했다. 세 번째 날은 전입하는 부대장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생활 기록부를 틈나는 대로 작성하였다. 입영심사대에서의 마지막 날엔 아침 일찍부터 훈련소로 향할 준비를 오전내로 마치고 훈련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둘째 주까지는 강사님들이 부대를 방문하여 정신교육을 하였다. 셋째 주에는 화생방 및 공포탄 사격과 영점 사격을 실시했다. 처음으로 총을 쏘 보기에 호기심과 불안감이 같이 밀려왔다. 화생방 훈련은 예전에 비해서는 약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고 입과 코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흘러나오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사격을 하기 전에 P.R.I 라는 자세 연습을 하였다.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조교들도 사격하는 주에는 더 예민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이해가 갔다. 그 다음 훈련은 종합 각개전투다. 포복은 힘들고 아팠다. 다음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날이었는데, 훈련동기들과 함께 적진을 향하여 공격하러 간다고 생각하니 모두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훈련은 행군이었다. 육군훈련소는 각 교육장 간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행군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이로써 모든 훈련이 끝나고 수료식 날, 우리는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다. 지금부터

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거의 한달 보름 만에 만져보는 핸드폰 촉감은 이상하기 짝이 없었고, 부모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부터 터트리시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남자는 군대에서 철이 든다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았다. 군대에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 말이다.

이로써 훈련병은 끝이 나고 이등병으로서 군 생활이 시작되는데, 전입부대가 발표나자 울상인 동기들이 있었다. 모두들 다른 데로 흩어져 떠나지만 나중에는 꼭 연락해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수료식이 있던 그 주 금요일 군 기차를 타고 각자의 자대로 떠나게 되었다. 보통의 용사들은 기차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특기병과 아래 지방쪽 부대는 버스로 이동하기에 아침 점호를 하기 전부터 헤어졌다. 나는 장갑차 정비병이기에 공병학교와 기계화학교 등이 있는 상무대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4주간의 교육을 받고서 자대로 가게 된다. 이러한 학교들이 있는 곳을 후반기 교육대라고 한다. 장갑차는 군대에서는 기계 쪽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이 끝나면 기계화사단으로 자대배정을 받게 된다. 후반기 교육대에서는 각자의 보직에 맞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간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다. 교육목표에 따라 체계화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곳에서 장갑차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지는 못하지만, 장갑차 조종수보다는 더욱 세심하게 배울 수 있다. 단기간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생들과 경쟁하듯이 배워야 하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교나 교관에게 다가가면, 시간을 내서라도 알려주려고 노력하신다. 군대나 사회나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란 걸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더 인간적인 곳이다.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군대는 사회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이다.

두 달간의 훈련과 교육이 끝나고 11월 초에 자대로 들어갔다. 자대로 와서는 훈련병 때와 교육생일 때 느끼지 못한 선임들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안이 있었다. 다

행히 우리 중대 선임들은 구타 및 폭언 등은 일절하지 않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다. 같은 이등병 장갑차 조종수 선임들은 내게 먼저 다가와서 후반기 때 어떤 것을 배웠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비 방법들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너 덕에 쉽게 해결하였다”며 고마워하기까지 했다. 이런 선임들이 많아서인지 점점 나는 내 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서 처음으로 큰 훈련인 흑한기 훈련을 하게 되었다. 살면서 이런 추위는 처음 맛보았지만, 올해 첫 번째 흑한기 훈련을 무사히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꼈다. 5월에는 전투지휘 훈련을 하게 됐다. 흑한기 때와는 달리, 이번 훈련 때부터는 내가 조금 더 앞서서 후임들을 지도해 주었다. 좀 모자라지만 이제 나도 선임이 되었다. 갈지자로 갈팡질팡하는 후임들을 지도하고, 함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 선임들이 나를 뒷바라지 해 왔듯 그렇게 남은 군 생활을 보람차게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선택은 내가, 후회는 네가

2경비단 화생방지원대대 일병 이종빈

나는 스물여섯 살,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일병이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고, 신체검사 결과는 과체중으로 인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 받았지만, 체중감량 후 현역으로 군대에 자원입대 하게 되었다.

군 입대 문제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선택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고, 1년 9개월이라는 군 복무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결정나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옳은 선택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렇지 않은 선택은 후회를 가져다 준다. '선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느냐인 것 같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여도 후회하지 않게 되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워 피해간다면 본인에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밖에 안 된다. 나 또한 입대 전에 많은 갈등을 했고 수 없이 흔들렸지만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고,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군 복무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다. 때문에 내가 입대를 하고

하지 않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내 신념에 따라 육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내가 자원입대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과 내 가족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내가 아는 유학생 중 일부는 나라 경제 사정이 어렵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자 국적을 바꾸기도 했다. 그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은 1년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그 청년들이 나쁘다 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나와 우선순위가 달랐고, 나는 군 복무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신 양가 할아버지가 대대로 나라를 지켜주신 만큼 나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들이로서 그 뜻을 이어 받고 싶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 군복 입은 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또한 비록 유학생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친구들에게도 걸뻘들은 유학생이 아닌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나를 더 강하게 성장시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 하겠다며 다짐 또 다짐 하였다.

새로운 장소 또는 집단에 속한다는 일은 언제나 떨리고 두려운 일 같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며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입대하기 직전은 매우 떨렸다.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 그리고 이미 전역한 예비역들이 공감하듯, 군 입대의 첫 관문인 훈련소 생활은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일들이 처음인 만큼 정말 단순한 일에도 긴장을 해야 했다. 동기들과 어색해 하기도 했고, ‘다’나 ‘까’ 말투가 입에 잘 붙지 않아 당혹스러운 순간들도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은 바로 각개전투였다. 겨울에 입대하여 정말 추웠는데 그 추위 속 각개전투를 통해 두 가지를 확실히 배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못 해 낼 것이 없고,





군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훈련소 생활을 마친 후 나는 자대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내가 희망하는 보직은 보병과 포병 같은 전투보직이었으며, 가고 싶은 자대는 전방이었다. 그러나 나는 후반기 주특기 교육으로 배치받아 상무대 화생방 학교에 가게 되었다. 훈련소 생활 이후 또 다른 관문이어서 인지 떨리고 설레었지만, 맘에 들지 않는 병과와 주특기로 인해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 내 주특기는 화학병과 중 하나인 제독이며, 현재 계룡대 육군본부 소속 제2경비단 화생방지원대의 제독병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제독이라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진심으로 아무 것도 하기 싫었다. 자대가 후방이라 훈련도 없고 군 생활 편하게 한다는 나쁜 꼬리표가 붙을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자대에서 생활 마인드는 점차 변화했고 자부심도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제2경비단 소속이라는 점이다. 제2경비단은 계룡대 유일의 전투부대이며, VIP 경호 및 계룡대 통합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인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군대의 심장인 육군본부를 방호한다는 임무 자체가 아주 큰 영광을 주었으며, 제독

병이라는 주특기 또한 여러 간부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귀한 보직이라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현재 군 생활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다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이야기 할 수 있다. 때로는 집에도 빨리 가고 싶고, 괜한 나의 영웅심이나 자존심에 이끌려 입대하여 사서 고생하나 의심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나라에서 부여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며, 책임감과 자부심이 점점 강해져 입대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점이다. 나는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군대는 넘어야 될 큰 산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내 경험에 의하면 군대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 더 큰 산을 넘기 위한 작은 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이다. 나라와 국민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간호를 하듯, 국민이 힘들면 나라가 앞장선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듯,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후회하는 삶과 후회 없는 삶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 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다. 충성!



## 내게 맞는 옷

11정보통신단 112통신대대 일병 박관희

“죄송합니다. 손님,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아직도 그 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오랜만에 옷을 사러 나간 길이었다. 지나치게 찢 살 탓에 맞는 옷이 없었다. 몇 번째 일지도 모를 마지막 옷가게에서도 나는 여점원의 민망한 얼굴을 두고 돌아서야 했다. 점원으로서 당연한 응대였겠지만 자격지심에 휩싸여있던 내게는 비웃음 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였다. 힘들었던 학업과 꼬인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는 먹는 것으로 풀곤 했다. 식사를 간식 먹듯이 해냈고, 야식은 당연지사였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은 덤이었다. 그러다 보니 내 몸무게는 어느새 100kg을 훌쩍 넘어서 130kg가 돼 있었다. 그제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에서만 그쳤을 뿐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다. 무더진 몸이 내 마음까지 무디게 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그때 뿐 나는 예전의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자연스레 외출도 줄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겁이 나서 약속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도무지 맞는 옷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도 이유였다. 그 날, 입을 옷이 없어 오랜만에 옷을 사러 갔던

날, 나는 돌아오는 길 내내 얼굴을 붉혔었다. 내 몸도, 내 의지도 부끄러웠던 날이었다.

그러던 내가 변하게 된 것은 병무청 신체검사 날 이후였다. 신체검사장에서는 옷을 갈아 입고 들어가야 했다. 반팔, 반바지 검사복도 내겐 맞는 것이 없었다.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숨듯이 들어가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는 당연히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검사장의 또래들은 대개가 현역 판정자들이었다. 우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뿜는 또래들을 보며 나는 철없이 기뻐했다. 그 힘들다던, 또 두려운 현역 군 복무라는 짐이 나를 피해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왠지 모를 찝찝함도 있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자랑하듯 이야기 했었다. 체중초과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기뻐하실 줄 알았던 어머니께선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다. 힘들어하던 시절 내내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고 격려해주시던 어머니께선 체중초과로 4급을 받았다는 소식에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내내 품었던 왠지 모를 찝찝함의 정체도 이해되는 듯 했다. 나도 내가 부끄럽던 시절이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할 수 있으시다던 어머니셨지만 속마음까지 웃고 계실 리가 없었던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밤낮을 뒤바꿔 먹기만 하는 아들은 130kg이 되었고,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외출을 하지 않고, 남들은 다들 해내는 군 생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왔다. 그러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커녕 철없이 기뻐만 했으니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지 짐작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살을 빼기 시작했다. 우선은 3급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몸무게가 목표였다. 그게 첫 번째였다. 어머니께도 목표를 말씀드리니 흔쾌히 도와주신다며 반기셨다. 자전거타기와 줄넘기 등 쉬운 운동부터 시작했고, 식단도 바뀌서 두부와 샐러드 위주로 먹었다. 그렇게 4개월 여가 지나고 재검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도 탈의실에서 검사복으로 갈아 입어야

했다. 저번처럼 맞는 사이즈가 없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맞는 사이즈로 입고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검사를 받고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며 별별 생각을 다 했다. 또 다시 4급이 나오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막상 현역 판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그러던 새에 결과가 나왔다.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순간에 그간의 고생이 무색할 만큼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더니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그날 내 몸무게는 99kg였다.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102보충대에 입대하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첫 피복을 받을 때, 옷을 고르러 갔던 날이 생각나 웃음이 나왔다. 여전히 동기들보다는 큰 사이즈로 옷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그날처럼 아예 맞는 옷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11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었다. 첫 날,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은 인원들은 자원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나는 건강소대인 화랑소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5주간의 정신없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 신병교육대의 땀겨름 코스는 아직도 기억난다. 사격장으로 이어지는 3km를 아침마다 뛰어야 했는데, 가파른 오르막은 너무 버거웠다. 매번 열외해서 걷듯이 따라 뛰곤 했던 그 길을 수료식 전 날에야 다 뛰었을 때의 성취감도 더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나는 일병 7호봉이다. 곧 상병을 앞두고, 진급기준에 맞추기 위해 여전히 운동 중이기도 하다. 102보충대에서 지급받은 피복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몰래 흐뭇해한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현역으로 군대에 가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들이 아직도 가끔 떠오른다. 현역판정을 받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우울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입대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하다 보니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 이제는 감사함이 앞선다. 거기에 많은 선·후임, 그리고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도 많다. 서로 간에 존중하는 자세로 예의를 지키고 또 양보해야 할 것이 많은 단체생활을 이어나가다 보

니 전역 후에도 사람들과 더 수월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몸무게를 핑계로 현역복무를 피해 갔다면 어땠을까. 몸은 좀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도 지금보다는 더 자주 볼 수 있었을 테니 그것도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내 인생에서 그 무엇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군 입대 이후, 나는 체중을 감량했고, 건강해졌고, 활발해졌다. 그러나 가장 큰 수확이라면 역시 ‘자신감’이 아닌가 한다. 나는 피하지 않았고, 아직은 멀었지만 점점 내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맞는 옷을 찾기 힘들었던 시절의 나는 요즘 매일 아침 전투복을 입으면서 마침내 내게 맞는 옷을 찾아 입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난관이 나를 기다리겠지만 군대에서 얻는 자신감으로 맞서 나간다면 또 못해낼 일이 무엇인가 싶다.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인 군대와 피하지 않고 맞부딪혔던 내 자신에게 나는 하루하루 감사하다.



## 군대, 인연과 기회의 장

미사일사 1400포병대대 일병 손영호

예전의 나는 군대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신경 써 보지 않은 곳이었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에 응하라는 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도 별 느낌이 없었다. 체중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불어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 112kg에 이르렀다.

체중검사를 위해 체중계 앞으로 다가가자, 징병관님이 살짝 웃으셨다. “이 정도 몸무게이면 무조건 4급이에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군대를 나만 갈 수가 없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내 뇌리에 스쳐지나갔다. 역시나 몸무게로 인해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4급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니 착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4급 판정을 받은 나를 보고 좋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소리가 매우 기분 나쁘게 들렸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군대가 나에게 이렇게 높은 문턱이었던가.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체중감량을 해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처음에는 돈도 벌고, 일도 고된 공장만 찾았다. 일이 매우 고되었지만, 힘들수록 체중이 준

다는 각오로 계속 하였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다이어트 복싱 체육관을 등록해 주셨고, 어머니께서도 같이 다이어트 복싱을 하셨다. 그렇게 처음에는 112kg, 공장을 다니면서 103kg으로 체중을 줄였고, 다이어트 복싱을 하면서 더 체중을 줄어나갔다. 최초 검사를 받고 8개월 후 약 15kg 줄인 후 경남지방병무청에 재검을 받으러 갔다. 제발 현역이 뜨기를, 절박함으로 기도했다. 다행히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검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바로 그 다음날, 자원입대를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체중을 빼서 자원입대를 하게 되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하지만 입대일이 다가오면서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군 자원입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점차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8월 17일, 입대일이 다가왔다. '과연 내 선택이 맞는 건가?' 자꾸만 의심을 가지고 훈련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훈련소 생활은 내가 두려웠던 것과 달리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우들과 함께 훈련하니 일종의 소속감이 들었고, 함께 무엇을 해 나간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군대의 '기본'을 다져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대배치를 받기 전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내 전우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점차 없어지자 먼저 자대배치를 받은 전우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다. 전우들은 진정한 의미의 군 생활이 시작되는데, 나만 아직 군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슬펐었다.

훈련소 생활의 마지막 후반기교육 마지막 날에 '취사병'이라는 보직을 받게 되면서 실망하였다. 군 생활은 '소총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취사를 하게 된다니.

그렇게 후반기교육을 끝내고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10월 24일, 자



대배치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어딘가의 일원으로서 1년 하고도 6개월을 같이 지낼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기대감과 반가움으로 마음이 설렌다. 육군훈련소를 나와 사령부에 도착하였고, 본부포대장님이 나를 인솔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을 보고, '진짜 시작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훈련병이 아닌 진짜 알짜배기 '군인' 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군 생활이 선택받아야 하는 군 생활이었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자 '선택받은 군 생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뿐인 선택을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멋진 군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가 인사를 잘 하자는 것이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웃는 얼굴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이 마주치면 인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두 번째는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체중을 줄였는데,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체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선임과 간부님들에게 인정받고,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자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서 취사병 일과가 끝나면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훈련장이 가깝기 때문에 훈련장까지 걷고, 다시 막사로 돌아오고, 다시 훈련장까지 걷는 방식으로 매일 2시간씩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밥맛' 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대로 된 식단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간을 하여 음식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요리를 하였다. 들어오는 후임들에게도 다른 것은 몰라도 '맛' 만큼은 엄격하게 알려줬고, '맛'을 내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하나 둘씩 목표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간부님들과 선임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었고, 보다 평온해졌다. 처음 가졌던 불안감, 의심은 사라졌고 자

신감과 인정받았다는 느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이 있으면서 얼굴을 익히고, 말이 트이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적이 사회에서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조직의 일원으로서 단결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러한 기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내가 의지할 수는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에게는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 아니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회이자 장이자, 인연의 장이었다. 또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공간이자 시간이기도 하다. 아직 군 생활이 많이 남았지만, 나 자신을 조금 더 많이 가꾸고 바꿀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매진하고, 전역하게 되면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 만화부문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생활 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을 밝힙니다.

유보유 공복 회고



# 자랑스러운 해방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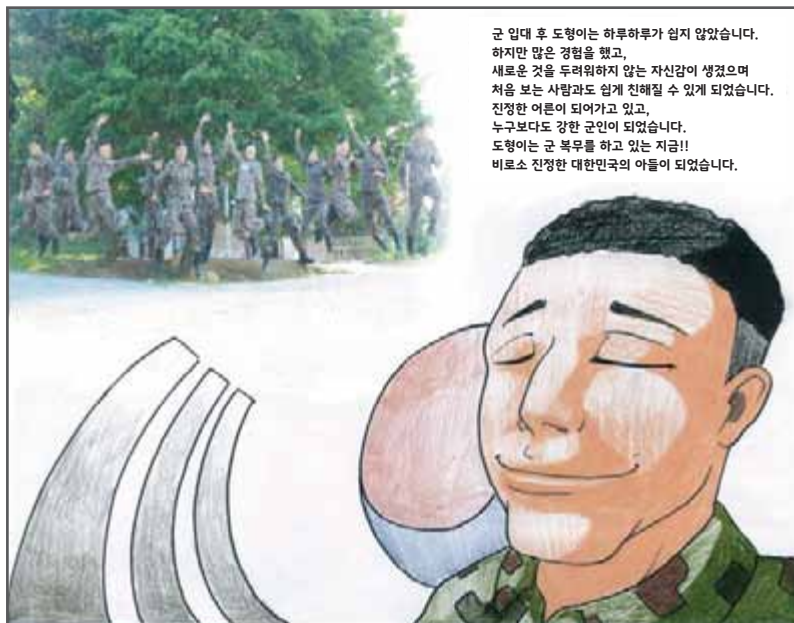
52사단 211연대 일병 이도형





낮선 환경과 단체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대장님이었습니다.





군 입대 후 도형이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을 했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누구보다도 강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도형이는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지금!!  
비로소 진정한 대한민국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유치우 공복 회고



# 군 입대 전과 후

52사단 211연대 상병 김슬범



아닌 것, 거북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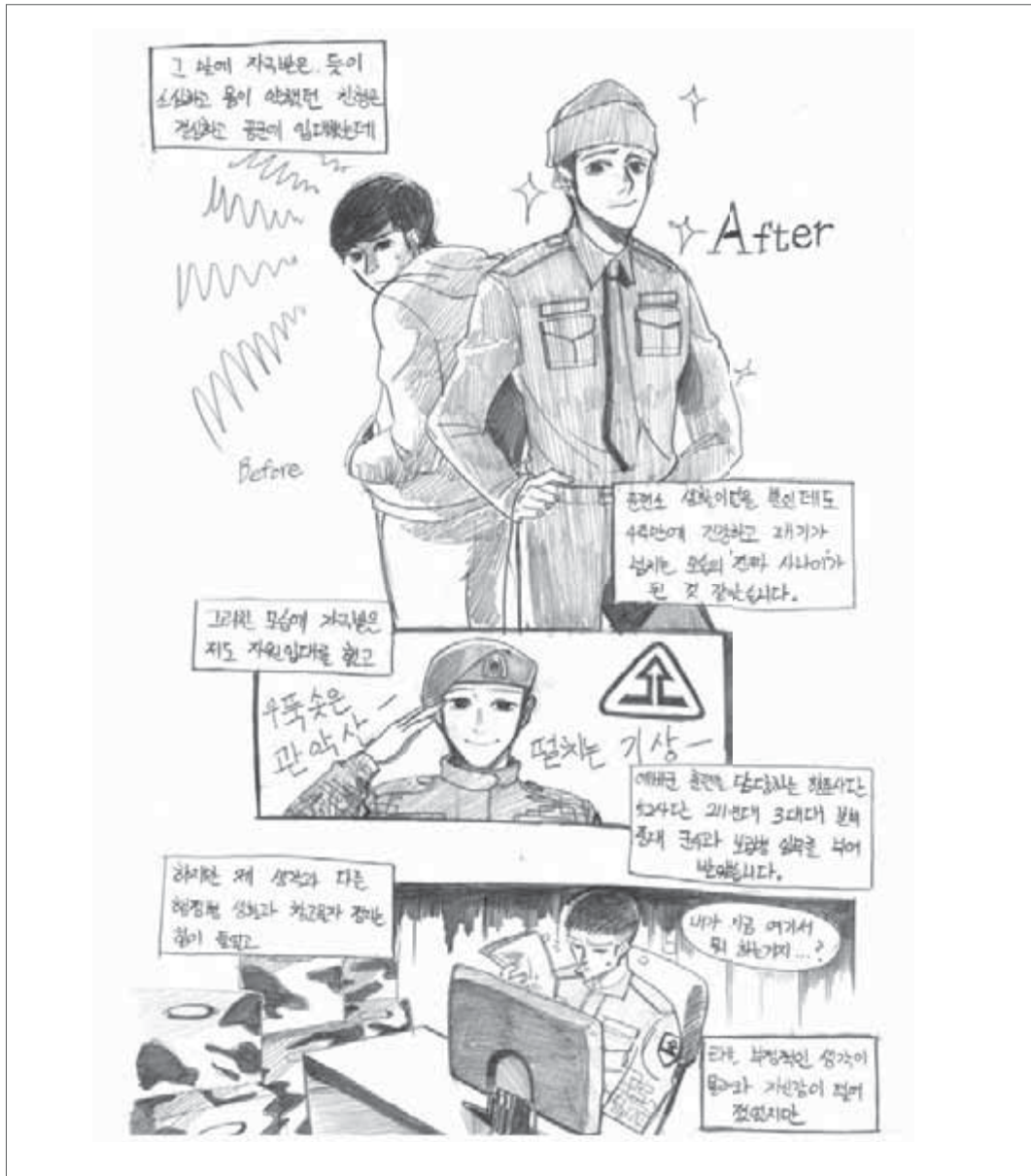
TV에선 아버지가 좋아하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유명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보여 주고  
형제가 군생활을 통해  
주었던 아버지께선



“힘든 이 아버지가  
진짜 쉬니까 되리라는  
관계를 다녀오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군대 이야기

61사단 179연대 지원중대 상병 김동해



내 이름은 김동해이다. 정말 애국적인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 부모님은 나를 대만에서 낳으셨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만에서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고자 석사를 한 학기 남긴 채 비행기를 탔다.

5월 26일, 나는 자연산 곱슬머리를 밀고 부모님과 친구들이랑 작별인사를 나누며 육군훈련소로 입소했다.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또 누구는 진지하고 참 다양한 감정이 보이는 곳이었다. 특히 여자친구 있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다. 나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첫 일자리를 구해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 오지 못했다.



훈련소에서 시간은 정말 빨리 갔다. 실 틈이 안보이고 전우조로 활동을 하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밖에서 쳐다본 적도 없는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교회만 가면 신세계에 온 느낌이다. “짬지”부터 시작해 “각개전투” “파도타기” “원발 원발” “쉬(spray)” 등.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



20km 행군을 마치고 그토록 기다렸던 수료식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수료식 위로 외출이 없었다. 그놈의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전국을 위협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내가 걱정이 되어 논산까지 내려오셨다는데 만나지 못하고 자대를 가야했다. 난 훈련소에서 자대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또 버스로 환승해 서울쪽으로 올라왔다. 나는 부평에 있는 61사단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여기가 앞으로에 나의 2년이란 세월을 보내야하는 곳이란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막막했다. 신병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행보관님은 나랑 면담을 했다. 행보관님은 특이한 사투리로 “니 계원할래?” “인사랑 장비 둘중에 하나 골라라!”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른 상태였지만, 장비를 골랐다. 웬지 모르게 장비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다.



나는 입대한지 2주도 안지나 동원훈련을 가게 되었다. 모든 일에 얼타는 나는 정신이 없었고 선임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한번은 선임이 포단을 접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생활관에서 열심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접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야 선임이 와서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선임은 밥 먹을 시간이 지나가니 빨리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결식을 하고 끝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날 나는 군인은 밥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직할중대의 장비계원 업무를 천천히 배워가는 시기였다. 하루는 본부중대장님이 한 병사를 찾아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나는 어리둥절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얼타고 있었다. 중대장님은 이런 나를 보고 창문을 가리켜며 “그 병사 밖에 있잖아! 그냥 불러.” 나는 바로 창문 쪽으로 뛰어가 “xxx 상병님 행정반으로 올라와주세요!” 크게 외쳤다. 본부중대장님은 애 왜 이리저 하는 표정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나는 한국어가 서투른 것 때문에 많이 혼났다.

드디어 휴가를 나갈 때가 왔다. 첫 휴가는 언제나 짧게 느껴진다. 벌써 복귀하는 날이 왔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신병휴가는 체감 3,4초라는 게 웬지 알 거 같았다. 나는 부대 근처에서 휴가 때문에 나와 근무를 바꾸어준 선임의 말이 생각났다. “맛있는 거 사와라!” 그래서 나는 맛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햄버거를 사두고 부대로 복귀를 했다. 그날 밤 나는 우리부대의 레전드가 되고 말았다. 그 후 선임들은 나만 보면 다음에 자기 것도 사다달라고 장난을 친다.



나는 미국에 우스터공대에서 소방공학을 전공하다 입대했다. 한번은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중대장님께 휴가를 건의하러 갔다. 나의 사정을 말하자 중대장님께서 너는 한국 마인드가 아니어서 한국에서 일 못 한다고 말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짓자. “네가 만약 결혼을 했고 네가 원하는 최고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 불이 났고 같은 시간에 아내를 출산중이면 어디로 달려갈 거냐?”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한테 가겠습니다.” 대답했다. 그러자 “거봐 거봐!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그 이후 나는 중대장님과 눈만 마주치면 한국어사, 전통, 기본상식에 대한 질문이 끝이 없었다.



선임들은 “아! 또 유격이야.” 하며 훈련을 두려워했다. 나는 친구한테서 유격이 아마 제일 힘들 거라고 많이 들었다. 그래서 유격훈련이 정말 기대가 됐다. 입소식 20km 행군을 마치고 유격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빨간 옷과 모자를 쓴 조교들이 나와 PT체조를 시키는 것이다. 정말 죽을힘을 다해 열외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조교 맘에 들지 못하면 열외를 당한다. 나는 PT체조 8번을 하며 전역한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솔직히 다시는 하고싶지 않은 훈련이었다.

날씨가 쌀쌀해지며 금방 겨울이 찾아왔다. 혹한기 훈련이 다가왔다. 유격에 비해서 혹한기는 약과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한다. 유일하게 힘든 점은 포대기를 하는데 발이 너무 시려서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숙영하면서 보온팩을 다섯 여섯 개를 터뜨려 자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3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군 입대로 그녀와 떨어지게 되었다. 군대에서 처음 알게 된 단어중 하나가 '일말상초'였다. 나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했다. 하지만 정말 얼마안가 그녀와의 관계는 한통 전화로 깨지고 말았다. 그 당시 나의 계급은 일병 5호봉이었다. 나는 이렇게 국제전화로 단순하게 3년이란 세월동안 쌓은 정이 전화 한통으로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에 너무 속상했다. 한편으로 나는 너무 억울하고 슬펐었다. 이틀 뒤 나는 근무 때문에 먼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혼자서 식판에 밥을 받아먹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밥알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요즘도 가끔 그녀가 생각이 난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늘 말해주듯이 그녀는 지나가는 한 송이 꽃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Interview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 태양의 후예, 한빛부대 영주권 병사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를 기억하시죠? 군에서 막 제대한 꽃미남 배우의 복귀작으로도 유명했던 이 작품은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던 젊은 군인들과 의사들의 꿈과 사랑을 통해 삶의 진솔함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드라마 속 파병부대 대원의 모델이 된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를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현재 200여 명의 한빛부대원 중 외국의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대한 병사가 다섯 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성승현, 나정인, 윤종호, 강태영, 오원준 병사입니다.

이번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응모자이기도 한 이들의 해외 파병 생활은 어떠한지 만나보실까요?

멀리 아프리카 남수단에 위치한 한빛부대로 직접 찾아가갈 수는 없었지만, 군 생활 수기를 통해 만난 인연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1,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영주권 병사 여러분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충성, 상병 성승현,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입니다.

충성, 상병 나정인, 영국, 아프리카 케냐 등에서 거주한 재외국민입니다.

충성, 상병 윤종호, 호주 영주권자입니다.

충성, 상병 강태영,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충성, 일병 오원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왼쪽부터 나정인, 오원준, 성승현, 윤종호, 강태영

## 2. 이번 수기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성승현 병사에게 한빛부대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볼까요?



(성승현)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 남수단에 파병된 우리 한빛부대는 2013년 3월 창설되어 내전의 상처를 안은 남수단의 재건을 위해 의료 지원과 난민 구호 등 다양한 민군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 한빛부대원들은 민군 작전 등을 통해 이곳 남수단 국민들에게 남다른 희망을 주고 있으며, 현재는 제6진이 8개월간의 파병 기간 동안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를 부여받고 복무 중입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프리카 순방길에 '진정한 태양의 후예'인 우리 한빛부대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 3. 한빛부대는 지휘부, 참모부, 공병대, 작전지원대, 경비대로 편성된 부대라고 들었는데, 각자 어떤 보직을 부여받아 재건활동을 지원하나요?

우리 다섯 대원은 작전지원대 소속으로 민군(民軍)간에 통역활동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4. 군인에게 파병 경험은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 공헌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군 장병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군 복무 경험을 할 수 있어 매력적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외 파병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현재 이곳 한빛부대 외에도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해역의 청해부대 등이 파병부대입니다. 선발 규모나 시기는 부대별로 다르지만, 모체부대가 공병부대나 특수부대인 경우 부대 단위로 총원하기도 하고, 의무병이나 통역병 등과 같은 필요 병과에 대해 공지를 하여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파병 선발 공지가 뜨게 되므로, 관심 있는 병사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5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국제 평화유지단에서 정신과 체력을 단련한 후 파병지로 가게 되며, 보통 6~8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 5. 국내에서의 병영생활과 크게 다른 점이나 해외 파병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정인)

통역병으로서 UN 회의에도 매일 참석하게 되고, 타국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많이 만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수단 최고의 한빛부대 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5년간 하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UN 평화유지군 소속 대원이 되어 왼쪽 팔엔 태극 마크를, 오른쪽 팔엔 유엔 마크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주최한 나라사랑 UCC 공모전에서 조동열 대위와 박성민 상병과 함께 제작한 '사랑하지 말입니다'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추억으로 남고, 앞으로 포상금 전액을 남수단의 굶주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6. 해외 파병은 국내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더 많고, 열악한 환경과 기후 조건에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파병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오원준)

남수단은 평균기온 영상 45도, 습도 70% 이상의 고온다습한 지역입니다. 높은 기온과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부대 기지 주변의 야외 배수 작업이 많았습니다. 햇빛으로 달궈진 지표면의 열기가 내 전투화 굽을 뚫고 발바닥을 태울 듯한 강렬한 태양 아래서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병사보다 먼저 삼을 들고 배수로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계신 단장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작업에 뛰어들어 예상 시간보다 빨리 작업을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성승현)

난민보호소에 급수지원을 갔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현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7. 한빛부대 대원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병사로서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남겨 주시겠습니까?



(윤중호)

Impossible이란 단어는 I'm possible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군 입대를 망설이고 있는 후배들에게 군 생활은 '진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며, 의지만 있다면 얻어갈 소중한 것들로 넘쳐나는 보물섬 같은 곳이라 전해주고 싶습니다.



(강태영)

부모님, 저는 이곳 한빛부대에서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부대원들과 서로 도우며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해외 파병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저는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충성.



TV 속 주인공들보다 더 멋진, 진짜 태양의 후예들을 만나고 나니, 병역이 더 숭고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임무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빛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처럼 이들의 마음 속에 매일매일 더 큰 대한민국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태양의 후예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는 그날까지 한빛부대 전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선임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15선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 선임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15선

### 예비역 고한국

####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다양한 민족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땅 美國의 이면에서 정체성에 대한 신념의 부재는 물질의 풍요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략)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군 복무가 단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훈련소에서 이목을 끈다는 사실이 매우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 덕에 군 복무에 대한 특별한 사명 의식을 고취해 나갈 수 있었다. (중략) 어떠한 일이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사랑 없는 희생은 있을 수 있어도,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도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권리, 즉 유토피아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 일병 이강철

#### '조국'이란 이름 아래

훈련소 입소 첫 날, 난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내 상상과는 달랐다. 낯선 훈련소에서의 첫날은 답답함, 막막함, 마치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릴 것만 같은 무서움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면서 나보다 더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청춘의 아주 작은 일부를, 아주 짧은 시간을 조국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긍지를 지닌 내 또래의 전우들을 보면서 나의 염려가 한낱 부질없는 걱정, 헛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략) 일생의 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내며 토종 한국인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나에게 '조국'이란 이름 아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해준 대한민국에 나는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 병장 곽주영

### 즐거라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어딜 가든 사람들은 날 한국인으로 볼 것이고, 만약 오스트리아의 국적을 취득했음지라도 내 피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군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건 내 인생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부모님은 말씀하신다. “네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너를 지키는 거라고” (중략) 혹한기 훈련 동안 난 밖에서 영하 15도 아래서 잤다. 정수차 임무 또한 수행하였다. 정수차 임무는 내 몸과 옷을 적셨고 그것들은 곧 철처럼 얼었다. 5일 동안의 훈련이 끝난 후 30km 행군이 시작되었다. 난 지금껏 이렇게 짧은 5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난 이러한 역경들을 즐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역경들 덕분에 나의 모든 면이 성장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군대는 우리에게 한계를 시험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

## 일병 박민기

### 나는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경직된 상하관계, 훈련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관리시스템 등 처음 직면하는 상황 앞에서 적잖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다. 왜 화장실을 매번 3인 1조로 가야 하는지, 30분 뒤면 덮고 잘 담요의 ‘각’을 왜 잡아야 하는지 등, 사회였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중략) 낯선 환경에서 힘든 건 모두가 똑같은데 마냥 불평을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나라를 지키러 온 것이지 놀러온 게 아니다’, ‘나약한 모습은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자 그동안의 불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이후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일병 조건희

### 상상속 조국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다

그때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훈련병 동기들의 울음이었다. 아마 부모님과 친구, 모든 것을 두고 와서 마음이 괴로워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한다. (중략) 소문으로 들었던 백골부대, 최전방에서 GP를 담당하고 있는, 적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대. 힘들 것이라는 걱정은 하진 않았다. 여기까지 온 김에 나는 남들과 다른 군 생활을 해보고 싶었기에 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곳, 백골연대로 전입하였다.

## 일병 이정엽

### 나의 군 생활

훈련소에서 나오기 전날 밤 나와 내 동기들은 우리가 배치된 부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연락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하다 잤다. (중략) 너무 미래만 바라보며 초조해하는 것 보다는 우선 현재에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군대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습관을 고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걸 느꼈다. 사회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보다는 어떤 사람들과 지내며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일병 오은택

### 조국으로 돌아온 군인이 말하는 병역의 의미

군대에서만큼은 그 어떤 외부적 요인보다는 오로지 나 자신 자체로 평가 받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유하게 자랐건 가난하게 자랐건, 고학력이건 저학력이건 상관없이 힘들 때 힘들고, 배고플 때 배고프며, 즐거울 때 즐거운 똑같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점에서 자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이다. (중략)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의존하는 삶보다는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병역의 의미이다.

## 일병 김성진

### 어깨 부상을 딛고 현역이 되다

역도란 운동에 대해 더 배우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를 가기로 마음먹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엔 그 누구보다도 기뻐다. 하지만 불행히도 운동 도중 부상을 당하여 어깨수술을 하였다. 아버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나에게 군대를 권유하셨다. (중략) 자대에 오고 여러 선임들을 만나고 어색함과 불편함도 느끼며 뭐든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만 느껴 힘들었다. 하지만 원래 하던 대로 무엇이든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하는 나를 보여주니 선임분들도 나의 진심을 알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상병 장준우

## 저체중을 관리하여 현역이 되다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왜소한 체격을 가졌던 나는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재수하면서 못했던 것들, 대학교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키우고, 여자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다. 무엇보다 20대에 21개월을 벌었다는 감사함이 컸다. (중략) 나는 세 가지의 군 생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살을 찌워서 남들 앞에 설 때 당당해지기, 두 번째는 차량 정비기능사 등 자격증 1개 이상 따기, 세 번째는 영어 기초 다지기. 입대하기 전에 걱정부터 미리 하지 말고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면 점점 변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병 장진영

## 디스크를 치료하고 현역이 되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평소 안 좋은 자세와 무리한 헬스 등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중략)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우선 젊은 나이에 허리가 아픈 사람. 아파서 군대 안 간 사람인 것이 싫었고, 웬지 모를 소외감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재검을 받아보기로 결심하고 수영과 걷기에 도전, 2급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었다. (중략) 훈련이 힘들고 고되어도 다 같이 고생하는 전우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즐겁게 군 생활에 임하고 있다. 또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이 자랑스럽다.

일병 이경호

## 벼랑 끝에서 찾은 행복

불규칙적인 생활패턴과 식생활로 인해 133kg까지 나가고, 고혈압과 각종 성인병을 앓고 지내던 스물한 살 청년이었다. 신체검사 결과는 생각지도 못했던 180이라는 높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인해 현역병 입영이 불가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중략) 입대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도전 자체를 무서워하고 주어진 삶에 대해 회피하려는 생각이 앞섰지만, 입대를 한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점점 바뀌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바로 나 자신을 격하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덤으로 신뢰와 믿음도 형성하게 되어 최고의 무기인 자신감도 얻게 되어 행복하고 보람찬 군 생활을 보내고 있다.

상병 임형진

## 군대 다녀왔습니다

내가 원해서 입대를 한 만큼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신체는 여러 생활에 제한이 되었다. 사격 입사호가 높아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웠고, 남들과는 달리 걸음속도가 뒤쳐져 제식을 맞추기 힘들었으며, 높이 위치한 물건들을 옮기거나 꺼낼 때 어려움을 느꼈다. (중략) 행군 중간 쯤 왔을 때 마음을 고쳐 '포기하지 말고 죽어라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한걸음씩 내딛었다. 이렇게 유격 입소 행군을 하면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된다." 이 다짐은 유격 내내 불가능할 것 같던 교장들과 유격 체조들을 열외 없이 받아내며 마지막 퇴소 행군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상병 이석원

## 시력을 치료하고 현역으로 입대하다

어릴 적부터 시력이 안 좋아 몇 번의 재검 끝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지고 있을 군대 추억,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중략) 거의 대부분 남 의견에 따라가던 리더십이라고는 단 1% 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내가 '분대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리더십도 생겼고, 책임감도 생겼다. 나 자신이 생각해도 많이 발전했고 스스로 많이 성숙하고 강해졌다. 또 평생 잊지 못할 어쩌면 었을 뻔한 추억들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 전역하기까지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상병 정민기

## 학력을 극복하고 입영하다

신체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결과는 1급 보충역.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으로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하였다. 나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두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8월에 시험을 치르고 초조한 마음으로 10월을 기다렸다. 마침내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아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중략) 군대는 막 나가던 학창시절 학교를 그만두고 방향했던 내게 인생 반환점이었던 것 같다.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부모님 마음에 바늘을 찔렀을 것이고, 시간의 중요함도 못 느꼈을 것이며,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는지 미처 몰랐을 것이다.

## 일병 오재범

### 초졸 학력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 군 입대하다.

초졸 학력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기에 틈틈히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생각보다 쉽게 중졸 과정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다. 처음 해보는 공부가 즐거워 고졸 검정고시까지 욕심이 났다.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인지 모두 한 번에 합격한 후 당당하게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다. 부모님의 건강악화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군 입대를 수차례 연기해야 했고, 직장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다. 그리고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운동을 소홀하게 한 탓에 체력이 다른 동기들을 따라가지 못했고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중략) 군 입대를 후회하고 있을까? 나는 군 복무를 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 중대원들을 만난 건 최고의 행운이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명품 백골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 심사총평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산문부문 심사편수는 영주권 131편,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 27편의 총 158편이었다. 자원입대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달랐으나, 국가에 대한 책무, 모국에 대한 동기부여는 대동소이한 느낌이다. 고국을 떠나 외국어에 젖었던 오랜 기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국어를 구사한 능력이 꽤 괜찮았다. 스스로 경험한 바를 의미 있게 표현함으로써 이를 체험하지 못한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특히 스스로 표현되는 일반인들의 수기와는 달리, 병영생활이라는 특수하고도 딱딱하며 한시적인 일상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추려냈다는 점에서 응모자들이 보여준 기록들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하겠다.

심사에서는 애국심을 발로로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살아있는지, 주제의식에 부합되면서 담담하고도 무리없이 글을 전개하여 결말이 자연스러운지, 자신만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현장을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기법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살펴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에 정해진 분량을 의식한 나머지 구상이 되지 않은 채 딱딱한 일상어를 나열하거나, 관념의식이 지나쳐 구체성이 없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결말, 불필요한 문단 구성으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깨뜨린 점은 감점의 요인이 되었다.

### ◇ 영주권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한 박주원 일병의 ‘내 나이 31, 내 인생의 작전타임’은 늦은 나이임에도 입영한 대학교수의 성찰이 담겨져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책무를 끊임없이 되물으며 적응해 가는 과정이 감동적이다. 우수상으로 선정한 안형빈의 부친 ‘아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다’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박종호 일병의 ‘후회는 없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입대한 후의 군 생활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기승전결의 구성이 돋보였다.

### ◇ 질병치유 · 학력변동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한 조용경 상병의 ‘힘내라 아홉수!’는 사회에서 사법시험에 연이어 좌절했던 터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다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 복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한 이덕원 일병의 모친 ‘자랑스러운 아들을 소개합니다’는 현역병 입영기준에 1cm 모자라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아들의 키 키우기 프로젝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애타면서도 감동적인 모정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박현우 예비역의 ‘삶이 바뀌는 계기’는 태생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입영한 인생역전의 내용이다. 세부묘사와 문장을 조금 더 다듬었더라면 훨씬 더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수기를 응모한 병사 모두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고백한다. 비록 수상작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수기를 응모한 병사들과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모두에게 한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소설가 최성배, 시인 우보환



# 자원봉사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6

발행인 병무청장 박창명

편집인 입영동원국장 최영래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처 병무청 자원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 481-2756 FAX. 042) 481-2979

[www.mma.go.kr](http://www.mma.go.kr)

제작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063) 714-3967

내가 지금 하는 군 생활이 곧  
나를 한층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군 생활이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군 생활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영주권 병사 군 생활 수기 中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mma.go.kr](http://www.mma.go.kr)